

INCHEON INTERNATIONAL
DESIGN FAIR 2015

2015 인천국제디자인페어

2015
INDEF

5th - 8th
NOVEMBER

시민과 함께하는 디자인 한마당

포럼 및 세미나 | 국제 교류전 | 인천디자인 테마 | 제안전 디자인소재 트렌드전
디자인지원사업전 | 시민참여 제안전 및 인터랙티브 존 | 디자인 프리마켓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사)한국디자인진흥회인천지회, (사)인천산업디자인협회, 인천경제통상진흥원

후원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문화재단, 관내 대학교, 언론사, 관련 사회단체

대상 디자인, 문화예술관련기업, 전문가, 학교, 학생, 일반인 등

2015 인천국제디자인페어 운영본부 • info@indef.kr • 1544-2757

www.indef.kr

인천 아트플랫폼

(전시장, 공연장)

11.5 (목) 14:00 부터

11.8 (일) 18:00 까지

개막식 11월 5일 2시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5 | 10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5 10



문항산 정상,
시민의 품으로

인천광역시

九月洞 金氏

김영승

물 퍼붓듯 부어대는 이 찬바람에
땃목 하나 띄우고
그슬린 머리털 바람에 행구고
소용돌이되어 높이 높이 빨려 들어갔더니

丹楓잎 되어 내려앉을텐가
숫눈발로 부서질텐가

가을인데 또 겨울인데
아무 것도 없는데

콩깍지 턴 참깨단을 태워
까맣게 구운 감자 한 알
호호 불며 먹고 있는
젊은이

붉은 저녁 노을 쏟아져 흐르는
西山엔
콧물 흘리며 떨고 있는 그의 모습
팡팡 늪어 폭삭폭삭 웃고 있는 그의
쭈글쭈글한 얼굴
보인다.

—《東亞日報》(1990년 11월 13일 화요일 자)



김영승(金榮承) 略歷

1958년 인천 출생
제물포고등학교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졸업
1986년 계간 《세계의 문학》가을호에 「반성·序」 외 3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데뷔
1994년 시집 『몸 하나의 사랑』(미학사), 시집 『권태』(책나무) 간행
2011년 제29회 인천시문화상 수상
2013년 시집 『흐린 날 미사일』(나남출판) 간행
제13회 지훈문학상 수상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전자책으로도 서비스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서점 알라딘, 바로북, 예스24 등에서 굿모닝인천 전자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찾아쉬 2015 프레지던츠컵 가이드	06
인천만의 가치창조 문학산 정상부 개방	12
화보 문학산의 옛 모습	18
테이스트 로드 인천 맛집	20
문자 도시, 인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	28
내 길 내 일 콘체르트아트하우스 고춘	32
까치발로 본 인천 ⑩ 송현동 솔빛아파트 → 동인천	34
CULTURE INFO	38
시간 속을 걷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획특별전	42
쭈민 인천시민의 날	44
NEWS BRIEF	46
COUNCIL NEWS	50
INFO BOX	52
이달의 책	56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아! 옛날이여'	57
모닝 커피 한잔 심현빈	58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5년 10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우승봉(대변인) 편집장 유동현(홍보콘텐츠팀장)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 편집위원 정경숙 사진 김보섭·김성환·김상덕(자유사진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0-84900-42-81 디자인 ㈜씨에디터 인쇄 ㈜보현토탈프린팅

CONTENTS 2015. 10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62



06



20



28



COVER STORY

인천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정신적 뿌리인 문학산 정상 부가 50여 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시민들은 정상을 오를 수 없었습니다. 10월 15일 시민의 날에 맞춰 개방합니다. 인천만의 가치창조를 위한 새로운 상생 모멘텀이 되길 바랍니다.

소통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인천시는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세상과 통하는 또 다른 문'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소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인천 날씨 '쾌청'

시민께서 인천시 종합민원센터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과 그 답변을 모았습니다.

인천 날씨는 언제나 '쾌청'.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미추홀콜센터 이용 안내 앱 '120 인천', SNS @120incheon,
전화 및 문자 032-120, 팩스 032-440-0400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전기세를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조회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수도 요금은 인천 상수도사업본부(www.waterworksh.incheon.kr)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이버
민원센터'를 이용하시거나, 휴대폰으로 '인천상수도 스마트 앱'에 들어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
금은 한국전력공사 대표번호 123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인천드림파크국화꽃축제'의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인천드림파크국화꽃축제'는 이달 8일(목)부터 18일(일)까지 열립니다. 참고로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제 형식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환경체험 교육에 중점을 두어 진행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다면, 드림파크 문화재단(www.dreamparkcf.com, 560-99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이 원래 인천이었다는 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인천역사자료관(440-8383)에서 확인한 결과,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중구, 동구 일
대만 인천이고, 나머지 지역은 부평과 인천을 합쳐 부천이 생겨났습니다. 부천이 인
천 관할이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나 인천으로 인해 부천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은 맞
습니다.

연수구에 사는 시민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보육료 해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부 상 동일 세대인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들어가 → 보육료 신청 → 기존 보육료는 해제 후 보육료 방식이 변
경 처리됩니다. 이때 양육수당과 보육료 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미디어 블로그 '**인천N조이**'(blog.naver.com/happyou)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ilyic)
블로그(incheonblog.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카카오톡(story.kakao.com/ch/incheoncity)

그건 이렇습니다

언론에 게재된 잘못된 사실을 정정하여 알려 드립니다.

2015년 8월 31일자 언론에 보도된 '섬 관광가치 발굴? 어민들 하울 정책'에 대한 해명 자료입
니다.

보도된 내용 중 해명할 부분

어민회는 "섬 관광 활성화를 외치면서 예산 삭감은 무슨 경우냐"며, "인천시민 50% 할인 덕분에 관광객 수
가 그나마 유지된다. 이는 인천시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이마저도 지원이 중단됐다"고 토로했다.

해명 내용

- 인천시는 도서 지역의 관광 증진과 인천 시민의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해, 인천 시민에게 여객 운임의 50%
할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인천 시민의 도서 방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올해의 '인천시민 여객 운임 지원'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
로 예상됨. 하지만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해 서해 도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차
질 없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임.
- 따라서, 인천 시민에 대한 여객운임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독자 홍명숙(70·인천 남동구)

원도심, 옛 모습 간직하며 발전하길

인천이 고향은 아니지만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1980년부터 지금까지 남동구에서 살고 있으니 돌아보면 인천에서 보낸
시간이 참 기네요. 인천 곳곳에는 추억이 스며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송도 유원지
에서 수영도 하고 자유공원과 수봉공원에 종종 놀러가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주말에
송도국제도시로 나들이를 가곤 하는데, 처음에는 달라진 송도의 모습에 정말 놀랐습
니다. 예전에는 바닷물이 찰랑거리는 갯벌이었는데,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들어설 줄
몰랐으니까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인천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창
시절을 보냈던 중구는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서 좋기는 한데, 도시 전체가 예전처
럼 활기 차지 않아서 아쉽기도 해요. 원도심도 옛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조금 더 발전
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굿모닝인천은 몇 년째 집에서
꾸준히 받아보고 있는데, 인천에 대한 소식이 알차게 들어있어서 좋습니다. 우리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자주 다니기 쉽지 않은데, 인천 구석구석의 소식을 집에
서 편히 알 수 있으니 참 고마워요. 그래서 매달 집으로 오는 책을 하나도 빠짐없이 처
음부터 끝까지 읽고 있습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 / goodmorning.incheon.go.kr



아시아 첫 프레지던츠컵, 월드컵 버금가는 빅 이벤트

2015년 10월 6~1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오래 기다려왔다. 이제, 시작이다. 조던 스피스, 버바 왓슨, 지미 워커, 제이슨 데이... 전 세계 골프계의 살아 있는 전설들을 한자리에서 볼 절호의 기회. '2015 프레지던츠컵'이 이달 6일부터 11일까지 대한민국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프레지던츠컵이 아시아에서 열리는 건, 대한민국 인천이 대회 역사상 처음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2015 프레지던츠컵 사무국,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what 프레지던츠컵

세계연합팀과 미국팀의 슈퍼 매치

전 세계 골프계의 살아 있는 전설들이 인천에서 역사적인 샷 대결을 펼친다. 프레지던츠컵이 아시아 최초로, 이달 6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월드컵과 올림픽에 버금가는 최고 권위의 스포츠 빅 이벤트다. 프레지던츠컵은 이달 6일과 7일 공식 연습 일정을 시작으로 대회의 서막이 오른다. 개회식은 7일 오후 6시에 송도 컨벤시아에서 화려하게 열린다. 본경기를 시작하는 8일은 포섬 매치 5경기, 9일은 포볼 매치 5경기, 10일은 포섬 매치 4경기와 포볼 매치 4경기가 차례로 치러진다. 대회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싱글 매치 12경기가 이어진다. 프레지던츠컵은 유럽을 제외한 인터내셔널팀과 미국팀 간의 골프 대항전이다. 팀별로 12명씩 모두 24명의 선수가 국가와 팀의 명예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대회는 2년에 한 번 열리며 그동안 미국,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개최한 바 있다. 1994년 시작해 올해로 11회를 맞는 프레지던츠컵이 아시아에서 열리는 건, 인천이 대회 역사상 최초다.

2015 프레지던츠컵 관람 포인트

인터내셔널팀 파이팅 미국팀 선수는 세계 랭킹 2위의 조던 스피스를 비롯해 버바 왓슨, 지미 워커, 잭 존슨 등 세계 최고의 골퍼들로 구성됐다. 이에 맞서는 인터내셔널팀은 세계 랭킹 3위의 제이슨 데이와 우리나라의 배상문 등이 출전한다. 역대 대회 전적에서는 미국팀이 인터내셔널팀에 8승 1무 1패로 월등히 앞서 있다. 올해 홈 무대에 선 인터내셔널팀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현장을 놓쳤다면 중계 채널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빅 매치이지만, 안타깝게도 대회 현장을 찾지 못한다면 중계 채널을 이용하자. 국제 중계는 미국 Golf Channel on NBC 방송이, 국내 중계는 SBS와 골프 전문 채널 SBS Golf가 담당한다. 이번 대회는 30개국 언어로 제작해 전 세계 225개국에 방송하며 10억 가구 이상이 시청할 전망이다.

알면 쉬운, 경기 운영 방식 프레지던츠컵 경기는 30번의 매치로 진행된다. 출전 선수들은 첫 4번의 세션(목·금·토·일 경기) 중 2개에 참가해야 하며, 일요일 싱글 매치에는 모두 출전한다. 모든 매치에는 1점씩이 주어지며 총 점수는 30점이 된다. 싱글 매치에서 종전과 달라진 점은, 양 팀 선수의 점수가 같으면 연장전을 치르지 않고 0.5점씩 점수를 나눠 갖고 무승부로 간주한다.



1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18번홀 코스
2, 3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PGA 챔피언스 투어



why 프레지던츠컵

아시아 최초, 수익금 전액은 기부

매트 카미엔스키 PGA 투어 부사장은 프레지던츠컵을 앞두고 “이제 때가 왔다. 한국 골프 팬들에게 이번 대회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가까이서 볼 일생일대의 기회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인 만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프레지던츠컵은 명예 의장을 개최국의 대통령이 맡아 대회의 무게감을 더한다. 이번 대회가 대한민국 인천에서 열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아 최초의 프레지던츠컵 명예 의장을 맡게 됐다. 이와 함께 PGA 통산 8승에 빛나는 최경주 선수가 인터내셔널팀의 수석 부단장으로 참가한다. 특히 프레지던츠컵은 입장권과 기념품 판매 등 대회 운영 수익금 전액을 참가 선수와 단장, 부단장이 선택한 자선 단체에 기부금으로 전달해 그 의미를 더한다. 1994년 처음 대회를 연 후 현재까지 모인 자선금액은 한국 돈으로 329억 원에 달하며, 전 세계 15개국과 미주 35개 주 총 450여 자선 단체에 기부해 왔다.

‘우승컵’의 주인공은 누구 대회 우승컵은 세계적인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Tiffany & Co.) 사가 제작했다. 무게가 12킬로그램에 이르며, 24K 금으로 도금해 다섯 개의 순은 고리를 회전시켜 제작했다. 세공에서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우승컵을 제작하는 데만 모두 80시간이 걸렸다. 우승컵은 대회를 두 달 앞둔 지난 7월 말에 우리시를 찾았다. 시청 본관 1층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옆에 전시해 일반 대중에게 선보이며 대회를 알렸다. 우승컵 원본은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오거스틴의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World Golf Hall of Fame)’에 보관한다.



2



3

1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인천대교 코스
2, 3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클럽하우스

1



where 프레지던츠컵

대한민국 인천 송도국제도시, 바다가 보이는 필드

골프가 오는 2016년에 열리는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공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전 세계에 골프 붐이 일면서, 세계 각 나라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한국은 지난 2009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도 전장을 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프레지던츠컵의 개최 도시로 대한민국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당당히 선택받았다.

대회가 열리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는 ‘황금 꿈’ 잭 니클라우스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코스를 디자인한 한국에서 하나뿐인 골프장이다.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코스답게 독특한 페어웨이 구성에 다양한 티 위치, 그린 주변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벙커와 해저드가 골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또 필드 너머 펼쳐진 송도국제도시의 빌딩 숲과 바다 그 위에 솟은 인천대교가 장관을 이뤄 라운딩하는 즐거움을 준다. 대회장 측은 이번 대회를 위해 코스의 전장은 7천413 야드를, 벙커는 6개를 새로 만들어 총 91개로 조성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이곳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는 PGA 챔피언스 투어가 열려 세계적인 골퍼들의 샷 대결을 펼쳤다. 그리고 2015년 10월, 세계의 살아있는 전설들이 아시아 최초의 프레지던츠컵에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쓴다. 프레지던츠컵 사무국은 대회 기간에 방문하는 갤러리의 수를 8만 명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세계적인 스포츠 빅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인천의 힘을 다시 보여줄 때다.

프레지던츠컵은 미국과 인터내셔널팀 간의 남자 프로 골프 대항전.

언제 2015년 10월 6일(화)~11일(일)

어디서 송도국제도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업무단지 117번지 일원), www.jacknicklausgolfclubkorea.com

대회 공식 웹사이트 www.2015presidentscup.com(국문), www.presidentscup.com(영문)

대회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2015presidentscup(국문)
www.facebook.com/ThePresidentsCup(영문)

입장권을 사려면 인터파크(ticket.interpark.com)에서 단독 판매한다. 대회 파트너사인 씨티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1544-1555

문의 프레지던츠컵 사무국 858-7104,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850-8000

50년간 막힌 ‘배꼽산’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문학산은 인천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동지이다. 비류백제, 미추홀 왕국의 발상지로 유서 깊은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1782년 조선 중종 때 간행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도 그렇게 전한다. 인천 정신의 뿌리이자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학산 정상이 군부대의 주둔으로 50년간 폐쇄됐었다. 시민들은 군부대가 있는지도 모른 채 정상부 밑으로 조성된 등산로를 이용하며 문학산을 보았다. 인천시가 인천만의 가치 창조 실현 차원에서 문학산 정상부를 50년 만에 개방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시민단체의 민원과 여론이 맺은 결실이다. 개방일자는 10월 15일 인천시민의 날에 맞춰졌다. 문학산 정상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날을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자는 취지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류재형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2



1

1 문학산 정상과 군부대
2 문학산 정상의 군부대가
보인다 터널 위쪽에
군부대 출입문이 있다.

2천년 전 백제 역사의 흔적, 곳곳에 스며있어

‘산천(山川)은 의구한데 인걸(人傑)은 간데없다.’ 고려의 충신 야은 길재(吉再)가 고려가 망한 후 고려의 도움 송도를 돌아본 후 읊은 회고기이다. 문학산을 올라보니 웬지 이 시조가 생각났다. 고구려의 왕자 비류가 문학산 밑에 미추홀 백제를 세운 지 2천년이 지났고 산기슭, 능선, 산성엔 옛 백제의 역사와 흔적이 용이처럼 남아 있지만, 백제를 세운 사람들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 지 오래다.

오는 10월 15일에 문학산 정상부가 개방된다. 이에 앞서 군부대의 도움을 얻어 문학산 정상을 미리 밟았다. 시민들에게 개방행사의 의미를 알리고 인천의 뿌리를 간직한 문학산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 안에 담긴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자는 뜻에서다. 문학동에서 문학산으로 올라가다 보니 길 옆에 굳게 잠긴 철문이 보인다. 여기가 문학산 정상부로 올라가는 공군부대 작전도로 초입이다. 차로 5~10분, 걸어서 20여 분 이면 정상에 닿는다. 보통 산 정상은 봉우리 때문에 암벽

도 많고 가파르지만, 문학산 정상은 운동장처럼 평평했다. 옛 자료에 의하면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정상을 깎고 판판하게 조성했다고 한다. 정상은 노란 페인트칠을 한 타이어들이 담을 대신해 쌓여 있었고, 군막사, 포대, 진지 등 군부대 시설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1950, 60년대 문학산을 답사하고 사진을 남긴 이종화 선생의 ‘문학산’ 책에 의하면 정상에는 ‘봉수대’, ‘우물’, 임진왜란 때 부녀자들을 피난시키고 전쟁에 공을 세운 인천부사 김민선을 기렸던 ‘안관당지’ 등의 유적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1997년 시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도 대략의 위치만 추정했다.

문학산 정상에서 인천을 바라보니 2천년 전 비류왕자가 문학산 아래 미추홀 백제를 세운 심오한 뜻을 알 것 같았다. 문학산은 장대하면서도 모든 것을 보듬는 어머니 품처럼 느껴졌다. 정상에서 북쪽을 바라보니 저 멀리 서울의 남산, 관악산부터 계양산, 인천대교, 연수구, 송도국제도시까지 인천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다시 남쪽을 내려다보니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남동구, 안산 시화호가 시원하게 눈에 들어온다. 인천은 물론 사방으로 서울, 경기도까지 걸리는 것 없이 전망할 수 있었다. 당시 금보다 귀했던 소금을 매개로 한 해상교류권과 고대 중국으로 가는 뱃길도 발길 아래 있었다. 사통팔달의 길과 대지의 풍요로움, 해상권까지 갖춘 왕국 입지의 최적지였다.

1965년부터 정식으로 군 부대 주둔

인천 도심에 위치한 문학산은 1883년 개항 전까지만 해도 인천의 중심지였다. 조선시대 행정기관의 역할을 했던 인천도호부청사도 이곳에 있다. 사유지인 문학산 정상부가 달라진 것은 1959년 갑자기 미군 기지가 들어오면서다. 봉수대가 사라지고 정상부도 깎였다. 문학산은 봉수대 때문에 배꼽산으로도 불렸지만 이후 그 이름도 함께 자취를 감췄다. 당시 윤갑로 인천시장은 '비록 국방상 불가피하였다고는 하지만 2천년의 이끼가 낀 갖가지 유물과 산성, 그리고 봉화대까지를 삼시간에 잃었다는 것은 참으로 서운하기 그지 없다'며 애통해했다.

'인천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김식만 선생(치과의사)에 따르면 이곳에 있던 미군부대 이름은 '캠프 인터셉트(camp intercept)'였다. 산 정상으로 오르는 차도를 남북 양쪽으로 개설하고는 정상을 깎아 레이더 기지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산 높이가 약 17m나 낮아졌다고 한다. 일제 때 지도를 보면 높이가 233m인데 지금 문학산 안내도에는 216m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시에서는 219m로 측정했다.

인천시 자료에 의하면 1965년부터 군부대가 정식 주둔한 것으로 돼 있다. 이때부터 1976년까지 미군 방공포대가 주둔했고, 그 후에는 우리나라 공군부대가 사용했다.

공군부대는 2005년 통제장비를 영종도로 옮겼고, 2011년에는 병력이 철수했다. 지금은 최소한의 근무자도 없이 군 시설만 남아있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탓에 인천시민 등 일반인 접근이 통제돼 왔다.

시민들은 정상은 볼 수 없었지만 정상 밑으로 조성된 등산로를 따라 문학산을 즐겼다. 문학산성을 따라 이어진 등산로는 바깥 도심도 구경하면서 산을 즐길 수 있도록 꾸며놓았다. 문학산



- 1 보수된 문학산성 구간
- 2 문학산 정상 부대 정문 초소 계단
- 3 문학산 정상의 군 부대 정문. 10월 15일 이곳의 문이 열린다.
- 4 문학산 정상에서 남쪽을 내려다보니 인천 시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성은 백제 초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둘레 577m, 평균높이 1.5m로 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호다. 미추홀 고성, 비류성, 남산석성으로 불리웠다. 시는 훼손된 성곽 일부 구간 160m를 2009, 2010년 약 2년에 걸쳐 보수했다.

전망대, 그늘막, 벤치 등이 설치, 낮 시간만 개방

문학산 정상부 개방을 앞두고 시설 및 주변 정비가 한창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은 위장진지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하늘에서 보면 미사일이 설치되어 있어 이곳을 군사시설로 오인하게 꾸며놓았다는 것이다. 유사 시 민간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시는 문학산 개방에 앞서 시민들의 편의와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정상을 메우고 있는 수풀의 제거 작업도 이뤄진다. 또한, 전망대와 망원경, 안내판, 벤치, 그늘막이 들어선다. 개방은 낮 시간대만으로 제한된다. 국가위기사태 발생이나 평상시 작전이나 훈련 때는 시민개방을 통제한다. 10월 15일부터 1단계를 개방하고, 내년 시설공사를 거친 후 군부대 전체를 공개한다. 1단계 시설물 공사를 조속히 끝내고 10월 15일인 인천시민의 날에 맞춰

개방한다. 시민한마당 축제도 함께 열린다. 문학산 개방은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다. 산의 장대한 기운이 인천 전역으로 퍼지고, 인천의 가치의 부흥으로 이어지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은 문학산 정상을 걸으며 산의 정기를 받아 마음의 정신적 뿌리를 다시금 되새길 것이다. 문학산 개방이 인천 시민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15일 문학산 개방 시민축하 행사

문학산 개방행사는 10월 15일(목)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열린다. 인천 역사의 발상지이자 상징인 문학산 정상부의 50년 만에 개방을 기념하는 간소한 의식행사로 치러진다. 10개 군·구 대표 풍물단의 사물놀이와 연날리기로 길트임이 시작된다. 이 길을 따라 시장과 시민이 손잡고 문학산 정상을 오른다. 문학산에 표지석의 제막식과 정상부 개방을 알리는 고유제, 봉수대에서 봉화를 올리는 의식이 재현된다. 인천 발전을 축원하는 글을 담은 인천 희망 연날리기, 풍물단의 신명나는 축하공연, 개방축하 떡 나눔 행사 등도 열린다.

문학산성에서 바라본 군부대 일부



학산서원터를 증명하는 비석(사진 위), 삼호현(사진 아래)

문학산이 품은 유적

문학산은 그 길고 긴 역사만큼이나 많은 유적을 담고 있다. 문학산과 영육을 같이해온 유적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문학산성

문학산성은 시 지정 기념물 제1호로 보존해 오고 있다. 고성의 축조는 연대 미상이지만 백제 초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부읍지'에 의하면 '성 주위가 436자'라고 기재되고 있다. 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이뤄졌는데 외성은 약 200m의 석축이며, 내성은 약 100m의 토성이다. 현재 산성은 일부만 복원되어 있고, 서예가 겸여 유희강 선생의 글씨가 새겨져 있던 '문학산성 동문' 등은 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학산서원

문학동에서 삼호현으로 가는 중간 야트막한 들판에 학산서원 비석이 서 있다. 서원의 건립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영조 14년(1768년)에 국왕이 현액(간판)을 하사하였다고 전해진다. 구한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폐쇄되었다.

안관당지(安官堂址)

임진왜란 때 부녀자들을 미리 피란시키고 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인천부사 김민선의 혼령을 모셨던 사당터이다. 안관당지에 대한 내용은 '인천부읍지'에 기록되어 있다. 1960년대 이종화 선생이 답사를 했을 당시는 주춧돌만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1910년대까지만 해도 성내에 사당이 남아 있었다고 전해진다.

우물

산성 동쪽 안관당 텃마당에 두개의 우물이 있었다. 높은 산마루에 있는 우물이었지만 그 옛날에도 언제나 물이 고여 넘쳤다고 한다. 그 우물이 어찌나 깊었던지 팔미도 앞바다와 맞닿았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물맛이 짠 것이 탈이었다고 한다. 이 우물은 임진왜란 당시 군사와 백성들이 왜적과 싸울 때 식수로 사용한 항쟁식수(抗爭食水)로 의미가 깊은 유적이다.

삼호현

문학봉과 서편 노적봉 사이의 잘록한 고개를 삼호현 또는 사모지고개라고 불렀다. 옛날 중국에 사신으로 떠나려 바다를 이용할 경우 능허대에서 배를 타야 했다. 삼호현까지 온 사신 일행은 별리고개에 남기고 온 가족, 친지와 멀리 마주서서 마지막 이별을 했는데, 이때 세 번씩 큰 소리로 불렀다고 해서 삼호현이 되었다.

중바위

삼호현을 넘어선 산비탈에 구멍이 움푹 팬 바위가 서 있는데, 이것이 곧 중바위다. 그 옛날 어떤 중이 고개를 넘다가 하도 갈증이 나서 바위에 걸터앉아 '아 우, 목이 탄다. 시원한 술이나 한잔 마셨으면 좋겠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난데없이 한 남자가 바위 밑에서 공손히 술 한잔을 받쳐들고 권했다. 목이 타던 그 중은 덥석 받아 마셨다. 갈증이 가시니 이번에는 술보다 남자에게 마음이 끌려서 다시 술을 청했으나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바위의 움푹 팬 구멍은 그 중의 두 무릎과 양손 자국이라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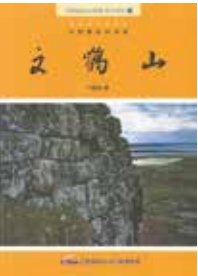


옛날 문학산 주변의 유적들은 지금 거의 볼 수 없다.
문학산 고인돌, 동쪽성벽, 옛 산의 자태...
지금과는 달라진 전경이다.
문학산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5,60년대
이종화 선생(의사)은 문학산을 두루 답사하며
귀중한 사진자료를 많이 남겼다. 그가 남긴 사진은
1965년 '문학산(文鶴山)'이란 책으로 발간되어
시민들의 마음에 문학산을 고이고이 간직하게 했다.



1	
2	
3	4

- 1 문학산의 옛 모습(사진 최성연). 아낙들이 푸른 문학산을 배경으로 빨래를 하고 있다.
- 2 문학산의 오솔길. 꼬불꼬불한 길이 문학산의 능선을 오르고 있다. 언덕 뒤에 고성의 서쪽 문이 있었다.
- 3 문학교인돌. 북방식 지석묘로 알려져 있다.
- 4 문학산의 여름. 기름진 땅은, 보기만 해도 흐뭇한 곡창을 연상케 한다.



이종화 선생이 남긴 '문학산'을
2006년 '인천의제 21'에서 복간한 책

1
2
3

- 1 1960년에서 1970년대 초 미군부대
- 2 문학산성 동문(사진 최성연)
- 3 문학산 동단(東端)에 위치한 선학동. 그 옛날
별리고개를 넘어서 인천읍내로 드나드는 역로였다.





‘백주부’도 모르는 인천 맛집의 비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소박하고 평범하면서도, 한번 맛 들면 자다가도 번뜩 생각나 다시 찾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맛. 오감을 사로잡는 것으로 시작해 기억 속 추억으로 남을, 인천의 대표 맛집을 소개하고 손맛의 비결을 알아본다. 요즘 인기 절정의 셰프 백종원도 모르는 인천 맛집의 비밀을 지금 공개한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김상덕 자유사진가



추억에서 오늘로, 옛날 경양식

송도국제경양식

그때 그 시절, 특별한 날이면 경양식집을 찾았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칼질’을 하면 제법 분위기가 났다. 국제경양식은 인천에서 ‘뽐’ 좀 잡아 본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 없는 오래된 경양식집이다. 그 시작은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년 시절 미군 부대 장교 식당에서 일한 김종성(75) 씨는 신포동에 햄버거와 프라이드치킨 등을 파는 ‘스낵 하우스’를 냈다. 지금이야 흔하지만, 양식을 먹으려면 호텔에는 가야 했던 그 시절에는 그야말로 ‘핫 플레이스’였다. 김 씨의 처남이자 지금 송도국제경양식의 대표 최동식(59) 씨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게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6년 후에 중앙동으로 자리를 옮겨 ‘국제경양

식’이라고 간판을 새로 달고 영업을 시작했어요. 인천의 첫 경양식집이었지요. 소문이 나면서 서울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고, 외국인들도 본토 맛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어요.”

1970년대 후반 이 일대는 인천의 변화가였다. ‘유니온’, ‘위스키 메리’ 등 가까이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찾는 클럽들도 많아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났다. 국제경양식은 80년대에 중앙동에서 다시 신포동으로 자리를 옮겨 명성을 이어간다. 당시 국제경양식이 인기를 끌면서 한 집 걸러 하나 경양식집이 생겨났지만, 술과 커피가 아닌 순수하게 음식만 파는 정통 경양식집은 이 집뿐이었다. ‘가장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면, 결국 손님이 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건 국제경양식이었다.

이 집은 2년 전, 이름 앞에 '송도'라는 두 글자를 더하고 송도국제도시로 동지를 옮겼다.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추억 속에서 오늘로, 화려하고 트렌디한 레스토랑 사이를 비집고 당당히 도전장을 냈다. 지금 최 씨의 곁은 호텔조리학을 전공하는 아들 최창영(27) 씨가 든든히 지키고 있다. 세대 건너 40여 년간 이어 온 맛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가길 기대한다.

“음식은 추억입니다. 많은 분이 우리 집 맛을 잊지 않고 아들딸, 손주의 손을 잡고 찾아들 오세요. 앞으로도 그들의 삶 기억 한편에 우리가 정성껏 빚어낸 맛이 추억으로 쌓여가길 바랍니다.”

송도국제경양식

위치 : 연수구 송도동 23-4 더샵센트럴파크2 C동 225호

영업시간 : 오전 11시 30분 오후 9시(주문 마감 시간 오후 8시 30분) 일요일은 쉼다.

문의 : 888-8525



국제경양식 안심 스테이크

국제경양식의 주 메뉴는 안심스테이크. 국내산 소고기 안심을 사용하며 반드시 220g 정량을 지킨다. 주인장이 직접 개발한 소스는, 40여 년 전 맛 그대로다. 요즘 구미에 맞춘 자극적인 맛과는 거리가 있지만 풍미가 살아 있다. 그 시절 경양식집이 그렇듯, 사이드 메뉴로 빵과 밥 중에 하나, 크림수프와 야채수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제경양식을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망설임 없이 빵을 선택한다. 직접 갓 구워낸 빵의 보드라운 결을 갈라 버터를 사르르 녹여 먹는 맛이 그만이다.



Recipe



재료 : 소고기(안심) 220g, 식물성 쇼트닝 2조각, 소스(양파 등 갖은 야채 적당량, 우스터소스·케첩 1/2컵, 토마토 페이스트 1/4컵), 곁들이(프렌치프라이, 삶은 당근, 마카로니 샐러드)

만드는 법

- 1 고기는 상온에서 이틀간 숙성시킨 후 다듬어서 준비한다.
- 2 소스는 양파를 비롯한 갖은 야채를 썰어 넣고, 우스터소스와 케첩을 넣어 3~40분간 푹 끓인다. 마지막에 토마토 페이스트를 혼합해 준비한다.
- 3 프라이팬에 쇼트닝을 두른 뒤 달궈질 때까지 기다린다.
- 4 연기가 나면 고기를 팬 위에 올려 굽는다.
- 5 고기는 미디엄으로 굽는다. 고기가 익히는 정도는 빛깔을 보고 판단하는데, 고기 위아래 각각 1/4가량 갈색빛이 나고 나머지 부위는 선홍빛이 감돌 때가 가장 적당하다.
- 6 완성한 스테이크는 접시에 담아낸 후, 소스를 덮어 촉촉함을 유지한다.

국제경양식 맛의 비결 : 스테이크는 직화 구이가 답이다. 오븐에 넣지 않고 팬으로 정성스레 구워야 고기가 뽀뽀하지 않고 부드러워. 굽는 정도는 미디엄 레어에서 미디엄이 육즙이 살아 있어 촉촉하고 맛있다. 고기는 국내산 소고기 안심만을 고집하는데, 냉동하지 않고 이틀간 숙성해 풍미를 더한다.

검정 아닌 하양, 이것이 진짜 짜장면

만다복

국민음식 짜장면은 중국 산둥에서 유래한 음식이다. 우리나라에는 개항기 때 중국 상인들이 인천항 부두 노동자들을 상대로 만들어 팔면서 그 역사를 시작했다. 까만 춘장에 캐러멜 소스를 버무린 짜장면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된 것으로, 차이나타운 내 요릿집 '만다복'에 가면 중국 본토식 전통 짜장면을 맛볼 수 있다. 춘장 약간에 고기를 담백 넣어 볶아 만든 '백년짜장'은 그 맛이 담담하면서도 깊고 풍부한 맛이다. 만다복의 대표이자 차이나타운 상가 번영회 회장인 서학보 씨가 100년 전 요리법을 따라 그 맛을 고스란히 재현해 냈다.

“맛을 내기 위해 조미료를 잔뜩 넣는 요즘 음식은 혀 끝을 자극하지만 그 맛이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34년 동안 요리를 하면서 재료 자체의 담백한 맛을 살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음식은 깊이가 있어서, 먹을수록 입맛을 당기기 마련이에요.” 대륙을 건너고 세대를 건너온 비법이니, 그 맛이 깊고 풍부할 수밖에. 처음엔 가웃하다가도 한번 맛 들이면 이만한 게 없다. 잘 볶아진 고기와 오랜 시간 발효시킨 춘장이 부드러운 면발과 어우러져 입안으로 술술 넘어간다.

그는, 요리에는 단순히 맛을 떠나서 '미학'이 있다고 강조한다. 짜장면 한 그릇이지만 그 안에는 역사와 문화, 추억이 오롯이 담겨 있다는 것. 언젠가 지금은 둘

아가신 화교 노인 한 분이 백년짜장을 맛보고는,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함께 먹던 바로 그 맛이라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고 했다.

‘후루룩’ 맛있게 한 그릇 푹딱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굴곡의 역사부터 삶의 추억 한 부분까지 찬찬히 곱씹으며, 음식의 미학을 음미해 보자.

만다복

위치 : 중구 차이나타운로 36

영업시간 :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

문의 : 773-3838



만다복 백년짜장

짜장면은 원래 하양다! 만다복의 하얀 백년짜장은 100년 전 중국의 요리법 그대로, 조미료 없이 주재료인 고기의 감칠맛을 살려 만든다. 걸쭉하면서도 단맛이 강한 한국식 까만 짜장면과 비교하며 먹으면 색다른 미각적 경험이 될 듯. 식사 후에는 주문한 음식과 궁합이 맞는 차가 나온다. 또 단골손님은 세심히 배려하여, 같은 음식이라도 그 입맛에 따라 재료와 맛을 달리해 요리해 준다.

Rec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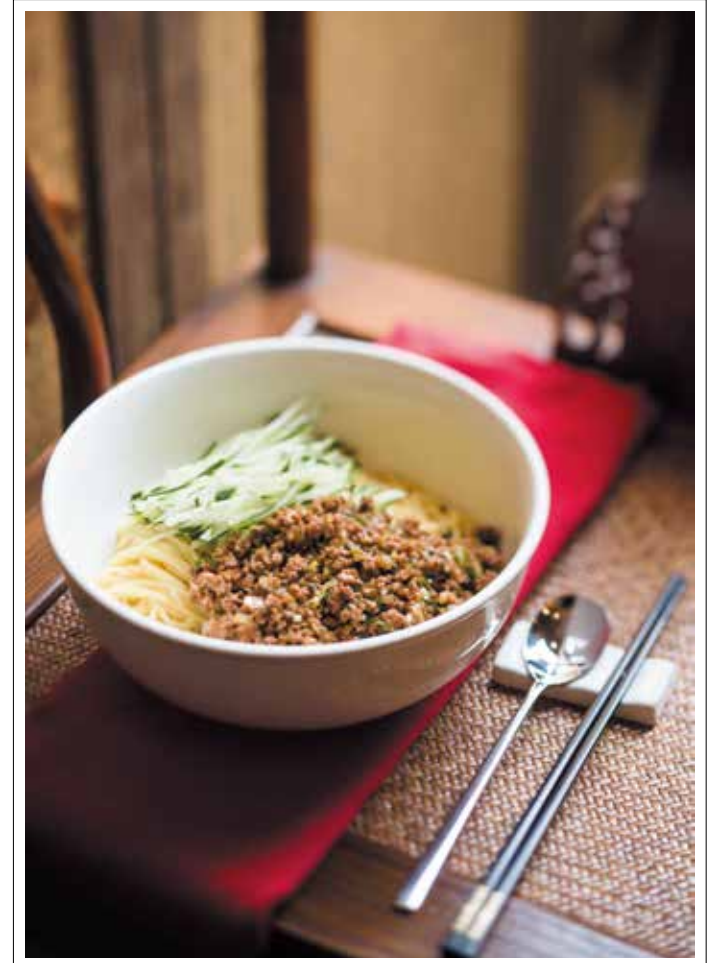


재료(4인분 기준) : 돼지고기(뒷다리살 또는 삼겹살 혹은 목살) 600g, 식용유 100CC, 파 한 공기, 생강 반 티스푼(매운 맛을 좋아하면 한 티스푼), 단맛을 좋아하면 설탕 반 티스푼, 춘장 네 큰 스푼(중국식 춘장은 두 큰 스푼), 면이나 밥

만드는 법

- 1 프라이팬을 기름에 기름을 두르고 연기가 나기 직전까지 달군다(160도가량)
- 2 팬에 고기와 생강을 함께 넣고 볶는다.
- 3 고기는 240도에서 260도의 센 불로 볶는다.
- 4 고기를 볶으면 팬에 수분이 배어 나오는데, 이 수분이 완전히 마르지 않고 촉촉할 때 춘장을 넣어 볶는다. 이때는 불을 좀 약하게 한다.
- 5 춘장의 향이 은은하게 날 때까지 볶는다. 마지막에 파를 넣고 익힌다.
- 6 짜장을 완성하면 면이나 밥과 함께 낸다.

만다복 맛의 비결 : 조미료를 쓰지 않고, 주재료인 고기의 담백한 맛을 살린다. 센 불로 빠르게 고기를 볶는 것이 포인트. 그래야 고기의 누린내가 없고 씹을수록 고소한 잔향이 살아난다. 고기를 얼마나 볶느냐에 정답은 없다. 긴 시간 불 색을 보고 감을 익혀야만 어느덧 터득할 수 있다고.





삼강설령탕
 위치 : 중구 참외전로 158-1
 영업시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문의 : 772-7885

역사 진하게 우려낸 뜨끈한 한 그릇

삼강설령탕

삼강옥은 6·25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한자리에서 국밥을 팔아왔다. 송의동에 있는 평양옥과 함께 국밥을 파는 식당으로는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다. 현재 김주숙(78) 할머니와 아들 박영수(55) 씨가 오순도순 꾸려가는 이 가게는, 1950년 시아버지인 고 박재황 씨로부터 그 역사를 시작했다. 고인은 황해도 홍천에서 식당을 하다 이곳으로 피란 와 고향 땅에 흐르던 삼강(三江)의 이름을 딴 가게 문을 열었다. 터를 제대로 잡았다. 가까이 청과시장이 있어, 가게는 밤낮 할 것 없이 상인들과 손님들로 성시를 이뤘다. 이 집은 설령탕집으로 이름이 났으나 처음에는 해장국을 만들어 팔았다. 김이 펄펄 나는 뜨끈한 해장국은 배고픈 서민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지친 삶을 위로했다. “농사꾼들이 달구지에 야채를 한가득 싣고 와 시장에 팔고 해장국을 먹으러 왔어. 새벽 4시에 문을 열었는데, 금방 자리가 차서 손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지. 가게 바닥에는 손님들이 고기를 먹다 버린 뼈다

귀가 쌓여 발에 채일 정도였어.” 전성기는 끝이 났다. 구월동에 농산물 시장이 생기면서, 동네를 찾던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한창때는 하루에 쌀 한 가마 분량의 국밥을 팔았는데, 지금은 한 달이 넘어도 쌀 한 가마를 쓰기가 힘들다. 그래도 예전의 맛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가게로 여전히 발걸음을 한다. “한결같은 단골들도 있고, 멀리 타향에 살다 기억을 더듬어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 한자리에서 오래 장사를 해줘서 고맙다고 격려해주기도 해. 참 고맙지. 그럴 때면 이 자리를 지키길 잘했구나 싶어. 힘이 나.” 반갑게도 요즘에는 인터넷을 보고 찾아오는 젊은이들도 생겼다. 지난해 열린 아시아경기대회 때는 뜻밖에 세계적인 수영선수 쑨양 아버지의 일행이 찾아왔다. “식당에 있는 메뉴를 죄다 시켜서 싹 비우고 가는 거야. 얼마나 맛있게 잘 먹던지.”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모처럼 웃음꽃이 환하게 번진다.

삼강옥 설령탕

6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맛이 한결같다. 이 집 설령탕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골을 우려내 고유한 맛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다. 다른 음식도 옛 비법 그대로다. 육개장에는 고춧가루 국물이 아니라 가게에서 직접 개발한 양념을 담백 넣고, 도가니탕은 통째로 푸짐하게 내놓는다. 할머니가 직접 담근 맛갈스러운 깍두기도 설령탕과 궁합이 딱 맞는다.

재료(4인분 기준) : 쌀뜨물, 한우 사골 1kg, 부재료(쇠고기 꼬리뼈, 양지, 도가니 등 각 600g), 소머리 고기, 소면 적당량

만드는 법

- 1 사골을 쌀뜨물에 넣고 끓인다. 쌀뜨물을 써야 국물 맛이 변하지 않고 오래간다.
- 2 강한 불로 사골을 다섯 시간 정도 우려낸다.
- 3 부재료를 넣고 재료가 익을 때까지 강한 불로 끓인다. 보통 두 세 시간 정도 걸린다.
- 4 소머리 고기는 기름기를 제거해 손질하고, 국수는 삶고, 파는 송송 썰어 둔다.
- 5 뚝배기에 소머리 고기와 국수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따랐다 하며 토렴한다.
- 6 그 위에 파를 담고, 설령탕 국물을 부어 완성한다(맛이 맛있으면, 조미료를 살짝 첨가한다).

삼강옥 맛의 비결 : 사실 가정에서는 식당에서 끓이는 설령탕 맛을 똑같이 내기 어렵다. 탕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이 적기 때문. 대신 다섯 시간 이상 오래 끓이면 깊은 맛을 낼 수 있다. 중요한 건 불의 온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 고기 특유의 누린내가 나지 않고 뒷맛이 깔끔하다.



Recipe



내 나이가 어때서~

‘한글’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인데!

인천에 아시아 최초로 세계국립문자박물관이 2020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팔만대장경부터 훈맹정음, 디지털문자까지 문자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가진 도시로 인정받은 셈이다. 문자에는 다양한 민족들의 사상과 정신이 깃들어 있다. 한글에도 우리 민족의 열과 정신이 살아 숨 쉰다. 10월 9일은 세종대종이 한글을 만들고 반포한 날이다. 그 나름의 사정 때문에 한글을 못 깨친 어르신들과 인천에 뿌리를 내리려는 외국인들이 한글 배우기에 여념이 없다. 문자의 도시 인천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의 가지가지 사연과 꿈을 들어봤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유창호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남구노인 복지관

어르신들 한글로 가슴의 응어리 풀어

남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남구노인복지관.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글교실엔 40여 명의 할머니들이 강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글 받침을 익히고 있었다. 뭉뚱하고 잔주름이 많은 손으로 연필을 꼭 쥐고 글씨를 또박또박 쓰고 있었다. 할머니들은 모음의 ‘애, 이, 우, 유’ 등의 활용법을 강사에게 배우고 있었다. 강사가 글을 읽으면 그에 맞게 써보는 과정이었다. 할머니들의 연세는 70~80대가 대부분이었다. 가장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은 1927년생으로 올해 88세인 이경한 할머니다. 할머니는 항상 남보다 일찍 와서 맨 앞줄에 앉아 한글 공부에 몰두하고 있어 강사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다.

주안 7동에 사는 조판례 할머니(75)는 한글 공부를 하면서 가슴에 맺힌 한을 풀고 있다. 작년에 처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할머니는 73년간 한글을 모르고 살아왔으며 울먹였다. 글씨를

몰라 당한 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세상살이에 자신이 없었고 항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고향이 안성인 할머니의 형제는 7남매였는데 딸 셋만 공부를 못했다. 예전엔 딸들을 학교에 보내는 걸 꺼렸기 때문에, 집에서 일만 하다 결혼하면서 배움의 기회를 놓쳐 버렸다. 할머니는 글씨를 몰라 당한 설움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버스 종착역을 못 읽어 엉뚱한 곳에 내리기도 했고, 다방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글씨를



몰라 헤매는 일도 있었다. 한글을 모르고 공부도 못했기에 할머니는 평생을 허드렛일을 하며 살았다. 목욕탕 때밀이, 설거지·반찬 아줌마로 밤낮없이 일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대물림해 주기 싫어 자식들은 무조건 가르쳤다. 할머니는 한글을 배우고 난 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된 게 가장 기쁘다.

이은순(79)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한글교실’에 오는 게 즐겁다. 쌍받침 쓰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고 쓰는 것도 꽤 가능해져 공부의 재미를 느끼고 있다. 할머니는 7살 때 취학통지서가 나왔지만 학교를 못 갔다. 대신 오빠가 공부할 때 결눈질로 글씨를 조금 익혔다. 아이들은 엄마가 ‘까막눈’이란 사실을 몰랐다. 젊은 시절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봉제공장에서 미싱일을 마친 후 야학에 나가기도 했다. 나중에 아이들이 알게 됐지만 엄마를 격려하고 응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머리가 아는 것은 좀 창피했다고 고백했다.

이곳에서 한글을 배우는 할머니들은 글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가슴에 ‘무거운 멍에’ 하나씩을 쓰고 살았다. 은행에 가서도 대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올 때까지 마냥 앉아있어야만 했다. 이귀순 할머니(79)는 글씨를 배워 은행에 가서 돈 찾는 것만 할 수 있어도 만족이라고 한다.

남구노인복지관은 한글을 못 배운 어르신들을 위해 문해교육의 일환으로 ‘한글교실’을 열고 있다. 초급, 중급 과정으로 이뤄져 있고,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아 과정이 늘어나고 있다. 한글교실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한글을 잘 읽고 쓰게 돼도 한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자존감 회복 차원에서 한글과정 이수자들의 주먹을 청동으로 본떠 전시하고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회복 차원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였다. 복지관의 한글교실은 60세 이상으로 남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문의 남구노인복지관 861-3001



글로벌 서비스센터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실

지난 9월 14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1층 글로벌서비스센터. 이곳은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실 운영, 한국문화 행사, 인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글로벌서비스센터가 지원하는 서비스 중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단연 ‘한국어교실’. 초·중·고급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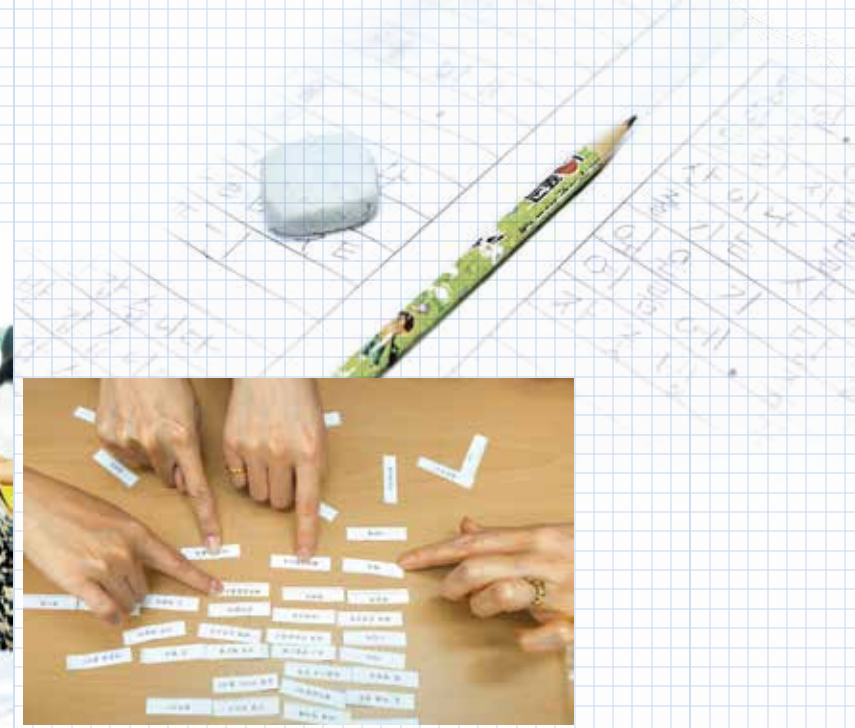
이날 오후 5시부터 한글 초급반 교육이 시작됐다. 수업 등록 학생 15명 중에 오늘은 10명 정도가 참석했다. 국적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 등 주로 미주, 유럽권이었고, 직업도 학생, 교수, UN기구·GCF 직원 등 다양했다. 이날 수업 내용은 한글 단어 읽기와 받침 있는 단어 배우기였다. 강사는 먼저 학생들의 숙제를 검사하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읽고 있는지를 체크했다. 학생들은 강사의 지도에 따라 더듬더듬 한글을 읽어 내려갔다. ‘아빠’ ‘오빠’ ‘해’ ‘구두’ ‘비싸다’ 등.

강사는 외국인들이 헷갈리는 글자 ‘개와 개’의 차이점과 활용법을 설명하면서 수업을 시작했다. 개는 바닷가에서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개는 한 개, 두 개, 세 개를 뜻한다고 설명하자 다들 고개를

를 끄덕인다.

캐나다에서 온 브리(22, 외국인학교 교사)씨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한국문화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한글교실에 등록했다고 한다. 그녀는 한국에 오기 전 캐나다에서 한국어 공부를 잠깐 했지만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있다. 한글과 영어의 문장 구조가 달라 공부가 다소 어렵지만, 중국어나 일본어에 비해서는 배우기 쉽다고 여겼다.

한국인과 결혼한 미국인 앤드루(30)씨도 한글 배우기에 여념이 없다. 그는 3년 전 평택 미군기지에서 근무할 때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다. 그도 영어와 다른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익히는 데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한다. 그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아내의 가족은 물론 한국 사람들과 자유롭게 말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글로벌서비스센터에서는 한글교실을 5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초급 1·2, 중급 1·2, 최고급반이 있다. 한 과정당 15주씩 운영하며 일주일에 두 번씩 1시간 30분씩 수업한다. 수업료는 무료, 글로벌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초·중급 과정 수업을 마치면 한국인들과 웬만한 회화는 가능한 수준이 된다고 밝혔다. 문의 글로벌서비스센터 458-5790



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결혼이주민 여성, 생활 한글 수업으로 큰 인기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주민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초급부터 5단계 최고급 과정까지 있다. 결혼이주민 여성 중엔 이곳에서 한글을 배운 후 한국어능력시험인 토픽(Topic)에 도전하는 사람이 꽤 많다.

지난 9월 14일에 있었던 한글교실은 3단계 수업이었다. 중·고급 과정인 3단계는 문장 구성, 생활 회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수업에선 한글 문장 만들기 게임을 했다. 팀을 나눠 강사가 제시한 앞 단어를 참조해서 그 뒤 문장을 빨리 만드는 팀에게 선물이 주어졌다. 문장도 결혼이주민 여성들이 가정에서 겪는 일상의 대화로 꾸며져 흥미를 돋우었다.

중학생 아들을 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 이진영 씨는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한글을 배우고 있다. 사춘기인 아이들과 소소한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소통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뤄진(중국, 34) 씨는 한국인 남편과 2007년 결혼해 3년 전 인천

에 왔다. 그간 한글을 배워왔기 때문에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어느 정도는 신문 읽기도 된다. 하지만 쓰기와 문법은 아직도 어렵다. 조사 ‘을, 를, 가’를 올바르게 쓰는 것과 ‘때문에’ ‘위해서’의 사용법이 늘 헷갈린다. 지금 임신 중인데, 아이를 낳으면 자신이 한글을 가르칠 계획이다. 또 토픽에 도전해 자격증을 따면 한국과 교류하는 중국 무역회사에 취직하고 싶다. 꿈을 이루기 위해 중급과정을 마친 뒤에도 계속 공부를 할 예정이다.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인천시의 다문화 관련 거점센터로 지정되어 있다. 부평에 결혼이주민 여성이 가장 많다. 한글 과정은 3개월씩 진행되고, 결혼 이주민 여성에게는 수업료와 책자가 무료로 제공된다. 한국어 과정을 들으려면 센터에 와서 일단 레벨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센터는 인천시 특화사업으로 토픽반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 중 일부는 10, 11월에 있을 토픽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한글교실은 인천시 9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모두 진행하고 있다.

문의 부평구 다문화가족센터 511-1800

열 평 지하세계에 예술의 꽃 피다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여기는 7, 80년대 동인천의 작은 고전음악 감상실. 느리게 돌아가는 LP판을 따라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흐른다. 깊고 낮게 공간을 휘돌다가 귀를 타고 마음 더 깊숙한 곳까지 스며드는 선율. ‘콘체르트’는 집다방, 풀무다방과 함께 당시 젊은이들이 고전음악을 들으며 같은 시간을 공유했던 ‘그들만의 아지트’였다.

고촌(58) 선생은 당시 콘체르트 고전음악 감상실에서 DJ를 했다. 그의 조부는 인천 향토사의 고전 ‘인천석금’의 저자인 고일 선생이다. 청빈한 언론인이자 일제에 맞선 사회운동가로 살아온 시간만큼 자손들의 생활은 궁핍했다. 그 어려운 형편에 음악 이론을 배운 거라곤 초·중학교 시절의 수업이 전부였지만, 음악에 있어서는 천부적인 ‘감’이 있었다. 한번 멜로디를 들으면 머릿속으로 다 외어버렸다. 악기를 살 돈이 없어 종이에 건반을 그리고 손가락 연습을 해야 했지만, 악보 없이도 연주를 온전히 흉내 내곤 했다.

마음속 끓는 열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청년 시절에는 국립중앙극장의 예술 공연 티켓 1년치를 한꺼번에 끊은 적도 있다. 당시 서울 장충동에 있는 국립중앙극장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대극장이었다. 좋은 음악이 듣고 싶었다. 틈만 나면 인천에서 서울까지 달려갔다. 오케스트라, 합창, 발레... 장르와 상관없이 공연이란 공연은 빠뜨리지 않고 섭렵했다.

1983년 콘체르트 고전음악 감상실은 문을 닫지만, 이내 콘체르트 고전음악 감상클럽으로 다시 역사를 이어갔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기 음악 감상회와 연주회를 열고 인천의 문화예술 소식이 담긴 회보를 만들어 돌렸다. 그때, 지금의 아내 구인숙 씨를 만났다.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아내를 만난 것과 세 자녀를

음악가로 키워낸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내 구인숙 씨와 함께 지난 2006년부터 문화예술 공간 ‘콘체르트아트하우스’와 연주단체 ‘플레인 앙상블’을 운영하고 있다. 서구 가좌동에 있는 작은 건물 지하 세계에 있는 콘체르트아트하우스에서는 음악 감상회와 연주회가 정기적으로 열린다. 그 작지만 큰 무대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인천의 문화예술계를 발전시키려면 인천에서 자라고 공부한 젊은 음악가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들이 이 무대를 발판 삼아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있는 힘껏 뒷받침하고 싶어요.”

그의 세 딸은 모두 음악을 전공했다. 첫째는 바이올린, 둘째는 첼로, 셋째는 비올라. 그는 “음악가 세 명을 만 들어냈다”며 자랑스러워했다. 매일 밤 머리맡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모차르트 21번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며 잠들던 아이들은, 어느덧 성장해 어엿한 예술가가 되었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세 딸도 아내와 함께 창단한 플레인 앙상블의 일원이다. 플레인(PLA-IN)은 ‘순수함’이라는 의미와 함께 ‘인천에 기반을 둔 연주단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인천에도 예술성 있는 음악을 연주하는 팀이 있어야 합니다. 수준 높은 음악으로 예술과 대중의 폭을 좁혀가야 해요. 앞으로도 플레인 앙상블을 계속 발전시켜 인천 최고의 팀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젊은 문화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인천 문화예술계의 꽃이 만발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젊은 시절 그가 매일을 흘린 듯 대극장을 찾았듯, 수많은 발걸음이 음악에 이끌려 인천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



그대들의 다운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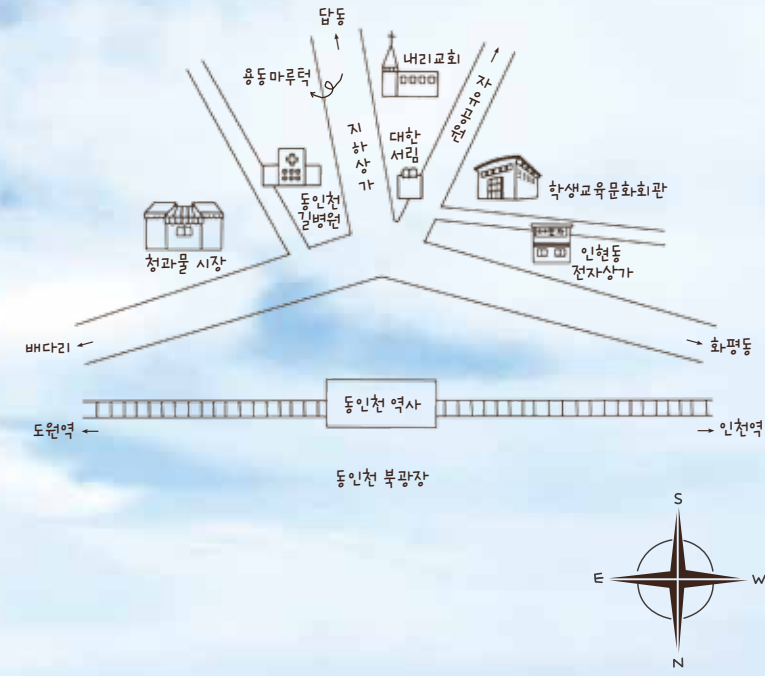
살짝 발만 들어도 풍경은 달리 보인다. 까치발을 하면 보이지 않던 부분이나 지형이 눈에 들어온다. 평지에서 바라보던 거리와 동네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모습일까. 위성은 너무 멀고 헬리캠(helicam)이나 드론(drone)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올라갔다. 건물 옥상이나 교회 종탑에 올라 인천을 굽어보았다. 그 정도 높이임에도 인천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이번 호에서는 옛 수도국산에 세워진 솔빛아파트 옥상에서 동인천 쪽을 바라보았다.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 ① 동인천역 ②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옛 축현초교) ③ 인현동전자상가
④ 동인천지하상가 ⑤ 용동마루턱 ⑥ 동인천길병원 ⑦ 청과물시장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까치발을 든 지점 | 송현동 수도국산 솔빛아파트(인천 동구 송현로 39)

수도국산의 원래 이름은 송림산(松林山) 혹은 만수산(萬壽山)이었다. 일제는 1910년 이 산의 꼭대기에 노랑진에서 끌어온 물을 저장하는 배수지를 만들었다. 이 배수지를 관할하는 수도국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이 산을 '수도국산'으로 불렀다. 6.25 전쟁 후 피란민들이 이 산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면서 산기슭에 1천800채의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들어섰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달동네가 되었다. 이 지역은 1998년부터 재개발되었으며 그 자리에 3천 가구의 거대한 아파트단지(솔빛마을)가 들어섰다. 배수지 공원이 조성되었고 2005년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이 개관했다.

이번 호 까치발 지점은 동인천 북광장에서 가까운 아파트(20층) 옥상이다. 자체가 높은 산에 건립된 고층 아파트의 조망은 거칠 것이 없다. 멀리 인천의 섬들도 실눈 안으로 들어온다. 동인천 지역은 스카이라인은 없지만 '보디라인'은 참 아름답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



‘시청(현 중구청)의 동쪽에 있다’ 해서 그 이름을 얻은 동인천(東仁川).

동인천은 ‘한때’ 인천 최고의 중심지였다. 그 한때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를 말한다.

배후에 공장과 시장 그리고 거대한 주거지가 형성돼 있어 큰길 작은 길 할 것 없이 늘 붐볐다.

기차를 비롯해 거의 모든 시내버스가 통과했기 때문에 외곽 사람들도 이곳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면 도시는 쇠락하기 마련. 어느 순간 동인천은 박제(剝製)되었다.

시간이 멈춰 버렸다. 3,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풍광은 별반 다르지 않다.

주위를 압도하는 웅(雄)하거나 장(壯)한 건축물이 세워진 적이 없다.

현재도 사진가의 눈을 현혹할 만한 피사체가 없기는 매한가지다.



① **동인천역** : ‘동인천역’이란 이름이 붙은 지 올해 딱 60년이다. 1899년 경인선 개통 당시 이름은 축현역이었다. 정거장은 지금의 동인천청과물시장 주차장 부근에 자리 잡았다. 비좁은 역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1908년 아예 정거장을 앞 쪽 넓은 공터로 옮겨 버렸다. 그곳이 현재의 동인천역 자리이다. 이름도 축현역(1899)→상인천역(1926)→축현역(1948)→동인천역(1955)으로 바뀌었다. 1989년 기존 역사와 광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5층 ‘인천백화점’이 개점하였다. 현재는 화상 경륜장과 경정장만 영업 중이다. 인천시민은 동인천의 ‘광장’과 ‘하늘’을 잃어버렸다.

②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옛 축현초교)** : 1999년 10월 30일, 동인천 호프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54명이 화마(火魔)에 희생됐다.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 들어섰다. 2001년 연수구 옥련동으로 이전한 축현초교가 있던 자리였다. 건물 뒤뜰에는 2m 높이의 위령비와 희생된 학생들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힌 추모비가 나란히 놓여 있다.

③ **인현동전자상가** :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인현동전자상가는 서울의 세운상가를 빼고는 수도권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 한때 축현초교 담장에는 한 평 남짓한 판자집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 집들은 주로 고물이나 중고품에서 부속을 빼 팔거나 수리를 하는 가게들이었다. 좌판은 1970년대 후반 학교 앞에 큰 길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체됐다. 양조장으로 사용했던 앞 건물로 입성하면서 인현동 전자상가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오고가는 사람들이 드물어 바람만이 골목을 배회한다.

- 1 1982년 동인천역
- 2 옛 축현초교 자리에 건립된 학생교육문화회관
- 3 인현동전자상가
- 4 1967년 동인천지하도 개통 초기 모습
- 5 용동마루터와 78년에 세워진 아치형 선전탑
- 6 길병원 모태가 된 이길여산부인과
- 7 청과물시장



④ **동인천지하상가** : 1967년 6월 3일 동인천지하도가 개통되었다.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지만 실제로는 민방공 대피용 목적이 더 강했다. 동인천지하도 개통 이후 71년 새동인천지하상가가 연결되었고 74년 동인천지하상가가 준공되었으며 77년 용동마루터까지 달은 중앙로지하상가가 완공되었다. 이후 80년 인현지하상가, 83년 신평지하상가가 조성되면서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었던 지하상가로(路)가 완성되었다. 덕분에 동인천역에서 답동사거리까지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었다.

⑤ **용동마루터** : 동인천과 신평동을 경계 짓는 용동마루터는 요즘 거의 불리지 않는 지명이다. ‘마루터’는 산줄기의 두드러진 턱(언덕)이다. 인천시는 광복 이후 동인천역과 시청(현 중구청) 등 중심지를 연결하기 위해 역 앞에서 답동까지 길을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일부 철거민의 집단 반발로 공사는 순탄하지 못했다. 1953년 4월경 철거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해 1955년 3월경 폭 30m, 연장 615m의 도로를 뚫었다. 오늘날과 같은 도로는 1970년대 초에야 완성되었다. 많은 차량과 사람이 오고가던 이곳에 1978년 웅장한 아치형 선전 철탑이 세워졌다.

⑥ **동인천길병원** : 이길여 박사는 친구와 함께 1958년 5월 중구 용동에 ‘자성의원’을 개원했다. 병원은 용동근우물 바로 옆 적산가옥 2층 10평 남짓한 목조건물이었다. 4년여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이길여의원’으로 간판을 고쳐 달았고 이듬해인 1969년 지상 9층에 36개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확장했다. 개인 병원으로는 인천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다. 특히 당시에는 보기 드문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주민들이 이를 구경하러 병원에 들어오곤 했다. 1987년 구월동으로 병원을 이전했고 현재 1천400여 병상의 대형 종합병원으로 성장했다. 처음 산부인과 의원을 개업하면서 현재의 가천길재단의 기틀이 된 ‘동인천길병원’은 여전히 용동에 남아 있다.

⑦ **청과물시장** : 1930년 공설 청과물시장이 지금의 중구 인현동 넓은 공터에 문을 열었다. 이곳은 1908년 축현역이 맞은편으로 이전하면서 생긴 공간으로 인천청과물주식회사가 들어섰다. 현재의 주차장 자리에 인천원예협동조합 경매공판장이 있었다. 중매인과 도매상인들은 채미전 거리 대신 ‘깁시장’이라고 불렀다. 1998년 9월 인천시가 주차장 마련을 위해 청과물시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대다수 상인이 송림동 동부시장과 송의철교 인근 청과물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청과물(과일) 도매업소 3곳, 건어물 가게 4곳만이 남았다.



CULTURE INFO

PERFORMANCE

EXHIBITION

MOVIE

CONCERT

MUSICAL

DRAMA

Octo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015 프리자
한마음 합창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초대
☎ 450-0501

2

2015 인천 근로자종합예술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초대
☎ 437-8501~3

황금.토끼
평양 민속예술단 '우리는 하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무료
☎ 420-2055

3

제14회 정기연주회
'Piano in Drama'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초대
☎ 010-3308-0429

4

인천클라리넷앙상블 정기연주회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 음악'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원
☎ 424-7117

7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개구리 왕자

부개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5천원
☎ 507-5996

8

리장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5천원
☎ 440-2498

9

청소년 진로나눔 예술축제
'함께, 우리들의 난쟁이 두 번째 이야기'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및 야외광장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전석 무료
☎ 580-1166

10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3시, 7시
학생 무료, 일반 1만원
☎ 760-3457

전통 혼례식

송도 새아침공원(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앞)
오전 11시
☎ 821-6229

연수문화사랑축제

송도 새아침공원(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앞)
오후 2시
☎ 821-6229

13

길영희 선생 서거 31주년
'길영희 추모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429-0248

14

커피콘서트 10
'먼 데서 오는 여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천원
☎ 1588-2341



15

'제 51주년 인천시민의 날
기념식&경축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 440-2500

10월 브런치 콘서트
세계 제일의 하모니카 연주자
'지그문트 그로브'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전석 2만원
☎ 580-1198



16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48회 정기연주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 1588-2341

17

감미로운 포크홀릭
'7080 가을바람, 추가열 콘서트'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 580-1135

영화 '빅 히어로' 상영

인천평생학습관 다목적 강의실
오후 2시
전석 무료
☎ 899-1554

팝핀현준 '토크콘서트'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4시
학생 무료, 일반 6천원
☎ 760-3457

18

심연 Abyss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30분
전석 2만원
☎ 070-7532-4325

인천원드오케스트라
제18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전석 1만원
☎ 010-6327-2401

20

마술피리(스크린공연)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선착순 무료
☎ 899-1516~7

관교여성무용단
제7회 정기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010-6311-5830

22

2015 Dancebird with THE TIME
'망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8시
전석 2만원
☎ 010-6335-3062

23

코리아기타오케스트라
제17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원
☎ 032-833-2080

패밀리콘서트 '링 위의 가족'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5천원
☎ 505-5995

24

인천문화재단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해설이 있는 발레 콘서트 II'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전석 2만원
☎ 580-1198

린나이팍스 오케스트라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4시
전석 무료
☎ 760-3457

25

제2회 인천 남구시민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032-880-4640

27

제20회 인천여성가족재단 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 517-1753

남구 청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초대
☎ 880-7317

28

인천시립교향악단 실내악시리즈II
'편곡의 마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 1588-2341

전통퓨전 연희극 '풍랑주의보'

부개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5천원
☎ 505-5995

어린이 음악회 '교문 앞 클래식'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30분
전석 3천원
☎ 580-1198

29

인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우리는 인천입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 1588-2341



30

인천남성합창단
제48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010-3662-0116

생활의 발견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10월 2~18일



이 달의
展

~ 10월 11일	유리그릇에 담은 사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10월 2일 ~ 10월 8일	2015 인천세계미술포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10월 2일 ~ 10월 8일	신정순 도자 작업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10월 2일 ~ 10월 8일	2015 제21회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예술제 전시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10월 2일 ~ 10월 14일	김문선 사진전 'The Soap' 사진공간 배다리
10월 2일 ~ 10월 16일	한글담, 색동 입은 한글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10월 2일 ~ 10월 16일	박진이, 길을 걷다(소소함의 미학) 갤러리 다솜
10월 9일 ~ 10월 15일	제10회 상해·인천·청도 국제 수채화 교류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대전시실
10월 9일 ~ 10월 15일	제6회 아라화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10월 9일 ~ 10월 15일	제8회 미우회 정기전 아름다운 친구들의 자연이야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10월 16일 ~ 10월 22일	제32회 인천 수석인 총 연합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10월 16일 ~ 10월 22일	2015 제6회 현대조형예술협회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10월 16일 ~ 10월 22일	제32회 인천 수석인 총연합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10월 16일 ~ 10월 22일	인천문인화협회 정기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
10월 20일 ~ 10월 29일	제3회 빛깔 무리화원전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10월 20일 ~ 10월 29일	김기민, human& nature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10월 23일 ~ 10월 20일	제51회 전국공모 인천미술대전 및 초대작가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소전시실

20년 후, 다시 만나는 '명성황후'

한국 창작 뮤지컬의 자존심 '명성황후'가 스무 살 청년이 되어 다시 인천을 찾는다. 한국 뮤지컬 최초로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 진출한 '명성황후'는 파란만장했던 명성황후 민자영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작품은 장대한 스케일의 무대와 군무, 다양한 색채의 한복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펼쳐진다. 히로인 '명성황후' 역은 16년 관록의 배우 신영숙과 뮤지컬계의 톱 배우 김소현이 맡아 뛰어난 연기력과 가창력을 보여준다. 20주년 공연을 맞아 더욱 업그레이드된 '명성황후'. 명성황후의 뜨겁게 피어나는 강인한 아름다움을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뮤지컬 '명성황후' 20주년 기념공연

일정 10월 9월(금)~10월(토)

9일 오후 2시, 6시 / 10일 오후 3시, 7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우리는 왜 가을이면 브람스를 찾을까?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제348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브람스의 곡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정치용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브람스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남성적이며 웅대한 악상을 가진 '교향곡 제3번 F장조 Op.90'이 펼쳐진다. 이어 브람스만의 차분하고 중후한 아름다움이 배어있는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77'을 연주한다.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이 아닌 '바이올린에 거역하는 협주곡'이라 할 정도로 연주자에게 최고를 요하는 작품. 브람스의 곡이 이 가을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물들일 것이다.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48회 정기연주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일정 10월 16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노르웨이의 자연을 담아, 하모니카를 부는 신사

세계 제일의 하모니카 연주자 '지그문트 그로븐'은 마법 같은 연주로 듣는 이를 노르웨이 숲으로 인도한다.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들며 장르에 관계없이 연주하는 그는 하모니카 연주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카네기홀에서 솔로 공연을 가졌다. 또 40년 동안 세계적인 솔리스트로 공연 활동을 하는 동시에 작곡가로서도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악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와 감동을 선사하는, 지그문트 그로븐의 음악에 젖어보길 바란다.

품격 살롱 스테이지, '브런치 콘서트'

'지그문트 그로븐' 연주회

일정 10월 15일(목) 오전 10시 브런치 타임, 11시 공연 관람

장소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티켓 전석 2만원

문의 서구문화회관 580-1198



'우리는 인천입니다'

인천의, 인천시민에 의한, 인천시민을 위한 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의 제147회 정기연주회에서는 김종현 신임 예술감독의 취임 연주회를 선보인다. 중앙대 음악과와 동 대학원 작곡과를 졸업한 김종현 지휘자는 미시간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린치버그 대학의 교수 및 대학원 음악과 과장으로 재직하며 합창 외길을 걸어왔다. 이번 취임 연주회는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김종현 예술감독의 합창 철학이 빛나는 시간이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합창의 매력이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 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음악으로 보답하는 인천시립합창단이 준비한 '인천의, 인천시민에 의한, 인천시민을 위한' 연주회에 많은 성원을 바란다.

인천시립합창단 제147회 정기연주회

김종현 예술감독 취임연주

일정 10월 29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전석 1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기부로 꽃핀 문화예술



인천문화재단은 지난달 17일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장에서 문화예술의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아트레인(ARTrain) 선포식'을 진행했다. 아트레인은 아트(예술)와 트레인(기차)의 합성어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자와 기부처를 열차의 량처럼 연결해 기부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재단은 연말까지 기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 기부자를 발굴하는 등 모금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형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기부자를 발굴하는 단계를 거쳐 오는 2018년 인천시 기부 공동체를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재단은 기부금을 조성하면 예술 창작, 문화 복지, 문화 예술교육 사업과 기존 정기 공모지원 사업이 안고 가지 못한 지역 문화예술의 수요를 창출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김윤식 재단 대표이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지원금에만 기대지 않고 기부문화를 확산해 문화예술의 재원을 다각화할 것"이라며 "문화의 가치를 되찾아 문화예술을 출발점으로 인천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문의 인천문화재단 기획홍보팀 455-7114



時間

인천, 근대의 시간을 달리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2015년도 두 번째 기획전시는 '시간(時間)'을 주제로 한 근대도시 인천의 이야기다. '시간(時間)'이라는 개념적인 소재가 근대도시 인천과 어떠한 연관이 있으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보자.



근대가 오기 전에 사람들은 시(時)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다. 근대화의 물결이 밀려들면서 세상은 '時'와 '時' 사이를 규정하는 개념까지 필요하게 되었다. 바로 '시(時) 간(間)'이다. 이제 사람들은 시간이 정해 놓은 규칙에 따라 살아간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학교나 일터로 가야 하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밥을 먹어야 하며, 졸리지 않아도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든다. 1부 '시간의 근대'에서는 닭이 울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지면 일과를 마치는 농경 중심의 일상에서 '근대적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변화된 모습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2부 '근대의 시간 그리고 인천'에서는 기선의 입출항과 철도의 개통으로 근대적 시간의 개념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또 교육과 상공업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보편적인 규칙으로 인식된 시간으로 변화된 근대도시 인천의 모습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3부 '시간의 역습'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정착되면서 변화하는 인간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일제강점기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 전매연맹'이 내건 일장기와 '시간존중(時間尊重)'이라고 표기된 선전지를 통해 일제의 식민 통치가 한국인의 시간도 지배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단순히 사회의 부속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요소로 쓰이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전시를 마무리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시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한번쯤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일시 8월 11일(화)~10월 11일(일)
장소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겸재 정선
(謙齋 鄭敼, 1676-1759)의
〈노송영지도(老松靈芝圖)〉
- 송암미술관 소장



老松靈芝圖

조선 후기의 거장 정선이 그린 소나무와 영지이다. '겸재팔십세작(謙齋八十歲作)'이라고 적혀 있어 그가 80세에 그렸음을 알 수 있는데, 노년의 그림답게 장수를 기원하고 있다. 늙은 소나무가 '수(壽)자' 형태로 꿈틀대며, 그 아래에는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의미하는 영지가 그려져 있다. 정선의 완숙함과 힘찬 필력이 느껴지는 대작으로, 문화재 국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10월 15일은 인천시민의 날 시민과 함께한 ‘반백년’

1965년 첫 시민의 날은 6월 1일

10월 15일 인천시민의 날이 올해로 50회 생일을 맞는다. 인천시민의 날은 1965년 당시 윤갑로 시장 지시에 따라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1965년 당시 시민의 날은 10월 15일이 아니라 6월 1일이었다. 이날로 정해진 데는 까닭이 있다. 인천 개항과 관련이 있다. 공적인 개항일은 1883년 1월 1일이었으나 시민들이 한데 어울려 하루를 즐기기에 너무 추운 계절이었다. 이에 일본인이 쓴 ‘조선사대계(朝鮮史大系)’에 적힌 대로 인천의 개항은 실질적으로 6월에서 비롯됐다는 기록에 근거해 6월 1일로 정했다.

제1회 시민의 날은 1888년 세운 국내 첫 서구식 공원인 중구 자유공원에서 정부 관계자와 외부인사 등을 초청해 ‘시민의 다짐(헌장)’을 공포하는 등 성대히 치렀다. 당시 만든 ‘시민의 다짐’의 내용은 이렇다. ‘황해 푸르러 멀리 퍼지고/ 구원한 문학의 정기 감도

는/ 여기는 내고향 인천/ 우리 모두 바다처럼/ 넓고 시원한 마음 서로/ 서로 믿고 서로 아끼며/ 땀흘려 일하는 시민이 되자.’ 1971년에는 ‘제물포제의 날’로 이름이 바뀐다. 상공인들의 제안에 따라 항도제(港都祭)를 겸해오다 아예 통합한 것이었다. 인천항 제2도크가 준공된 1974년부터는 준공 다음 날인 5월 11일이 시민의 날로 지정됐다. 외세에 의한 개항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는 것은 자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시는 동양최대의 도크식 갑문이 준공(1974년 5월10일)된 날을 ‘인천시민의 날’로 맞췄다.

경기도에서 분리돼 직할시로 승격한 1981년부터는 시민의 날이 직할시 승격일인 7월 1일로 또 바뀌었다. 인천시는 1981년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직할시가 된 7월 1일로 다시 정했지만, 장마와 더위가 한창 때여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날짜 변경에 대한 고민이 오랫동안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1994년에 10월 15일로 정해

10월 15일로 시민의 날이 변경된 것은 1994년이었다. 1993년 인천시사편찬위원회가 1413년 10월 15일이 인천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사실을 각종 역사적 문헌에서 찾아내 건의했고, 이듬해부터 이날 행사를 열었다. 당시 인천시는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시민의 날 선정에 관한 설문 조사를 벌였다. 인주(仁州)가 인천(仁川)으로 개칭된 10월 15일(1413),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인 9월 15일(1950), 인천항 개항일인 2월 23일(1883), 경인선 개통일인 9월 18일(1899) 등을 놓고 시민 의견을 물은 결과, 인주가 인천으로 개칭된 10월 15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1970년대 말까지 시민의 날은 그야말로 도시 전체의 축제였다. 특별한 문화 행사가 없던 시절, 인천시는 지역 행사와 한데 묶어 경축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

시는 2014년부터 인천시민의 날에도 국기를 게양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는 인천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시민의 날도 국기 게양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인천시민들도 인천시만의 특정 기념일을 기리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조례를 만들었다.



올해 시민의 날 문학산 정상부 개방 행사 열려



올해 시민의 날 행사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콘셉트로 인천의 비전을 보여주는 행사로 꾸며진다. 시민의 화합을 기원하는 기념식 및 축하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운 뒤 오후 2시부터 문학산 정상부 개방 행사가 열린다. 시민의 날에 맞춰 문학산 정상부가 공개된다. 인천만의 가치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의 정신과 뿌리가 담겨있는 문학산 정상부 개방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누자는 취지다. 시는 인천시민의 날 경축행사로 인천도호부대제, 월미국화축제, 청소년문화대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시민의 날을 다함께 즐기는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행사명	일시	장소
제51회 시민의날 기념행사	10월 15일 오전 10시~11시 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문학산 개방행사	10월 15일 오후 2시부터	문학산 정상부
시민생활체육대회	10월 4일 오전 9시	문학보조경기장
인천도호부 대제	10월 10일 오전 10시	인천도호부청사
월미 국화축제	10월 18일까지	월미공원 전통지구
청소년 문화대축제	10월 17일 오전 10시	중앙공원 일원
박물관 등 무료관람	10월 15일	짜장면박물관 인천근대건축사전시관 개항박물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소래역사관 강화역사박물관



인천관광공사, 4년 만에 재출범



인천관광공사가 4년 만에 독립기관으로 부활해 재출범했다. 공사는 지난달 22일 송도 미추홀타워 광장에서 인천관광공사 출범식을 개최했다. 공사는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의료관광재단을 통합해 출범했고 조직은 1본부 3처 1실 1단 12팀 96명으로 구성됐다. 우리시는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의 수요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관광업무를 통합관리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했다.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특유의 창조적 관광콘텐츠 개발로

수익모델을 꾸준히 개발, 시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종합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축사에서 “인천이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도 관광객 유입이 저조한 것은 차별화한 관광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인천관광공사 출범을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종합 관광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관광공사는 2006년 1월 출범했다가 2011년 12월 인천시 공기업 통·폐합 때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통합하면서 인천도시공사로 재편됐다.

문의 시 관광진흥과 440-4056

인천경제자유구역 자동차산업 거점'으로 뜬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청라·영종 지구가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과 연구소, 완성차 업체 등이 밀집한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현재 송도국제도시에 미국의 자동차 전문지 'Automotive News'가 선정한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기업 가운데 17위인 스미토모, 35위 헬라, 36위 브로제, 45위 만도 등 4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자동차 부품 관련 글로벌 기업인 헬러만타이툰과 파이오락스도 송도국제도시에 동지를 틀었다. 여기에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벨기에 유미코어(Umicore)가 출자한 오덱사의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연구소가 다음달 준공된다. 글로벌 완성차 제작사인 GM은 2007년 청라국제도시에 자동차 주행시험장 및 연구개발 시설을 건립, 연구인력 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382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가속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2020년 개관할 예정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에 문자박물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마치고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마무리한다. 이어 내년 1월 문체부와 우리시 사이에 박물관 건립 관련 협약을 맺은 뒤 설계 공모와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문자박물관은 총사업비 950억 원을 투입해 송도국제도시 중앙공원 인근에 연면적 2만㎡ 규모로 조성한다. 전시시설은 종합관과 국가관, 기업관, 상설·기획 전시관으로 구성되며 이 외에 교육·연구시설과 국제회의시설, 체험관, 공연장, 수장고 등 세부시설이 들어선다. 다양한 세계문자를 주제로 전시와 체험, 연구와 교류활동이 어우러지는 개방적 복합 문화공간을 지향한다. 인천시는 이곳에 '시각장애인인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의 기념공간을 설치하는 방안도 문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1888년 인천 강화군에서 태어난 선생은 시각장애인 교육에 매진하다가 1926년 최초의 한글점자인 '훈맹정음'을 발표했다.

문의 시 문화재과 440-4483

우리 시가 2017년 개최하는 FIFA U-20 월드컵의 개최 도시로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달 25일(한국 시간) FIFA의 본부가 있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인천을 포함해 천안, 대전, 제주, 전주, 수원 등 2017년 FIFA U-20 월드컵 개최 6개 도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FIFA U-20 월드컵은 FIFA에서 주관하는 2번째 큰 대회로 선수들이 프로무대에 입문하기 전 마지막 실력을 펼치는 무대다. FIFA는 2013년 이미 우리나라를 이번 대회 개최국가로 선정한 바 있다. 2017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열리는 대회는 모두 24개 팀이 참가해 약 22일에 걸쳐 6개 도시에 분산돼 52경기를 치르게 된다.

대한축구협회와 FIFA는 2017년 FIFA U-20 월드컵 개최를 희망하는 국내 9개 도시에 대해 경기장 및 호텔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거쳐 적합한 최종 6개 도시를 검토한 바 있다.

문의 시 체육정책과 440-4073

인천, 2017 FIFA U-20 월드컵 개최 도시로

인천 몸짱 소방관 모두 모여~

인천소방본부는 지난달 23일 본부 대강당에서 소방관계자, 선수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몸짱 소방관'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열린 경연 결과 1위에 신숙규 소방위(남동소방서), 2위에 엄민규 소방교(119특수구조단), 3위에 임상민 소방사(남부소방서), 인기상에 박상도 소방교(계양소방서)가 올랐다. 1위를 차지한 신숙규 소방위는 10월 충남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 또한 출전한다.

몸짱 소방관 선발대회는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소방업무환경 조성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것으로 이날 대회에는 22명의 소방공무원 선수 참가자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 아울러, 소방관 밴드인 비상구와 색소폰연주 등 축하공연도 있었다.

문의 소방본부 870-3363





‘가을의 꽃 국화’ 드림파크에 만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 코스모스, 백일홍 등으로 꾸민 야생화 단지를 개방한다. 매립지공사는 2004년부터 매년 축구장 7개 면적의 야생화 단지에서 ‘드림파크 국화축제’를 열고 있다. 이번 축제는 문화공연과 부대행사 등은 열지 않고 단지만 개방해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매립지공사 측은 대신 폐자원의 순환을 테마로 한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가을꽃밭을 조성했다. 단지에는 대규모 코스모스·백일홍 꽃밭, 야생초 화원과 함께 자연학습 관찰원과 습지 관찰원 등의 테마공간이 마련됐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 환경 교육을 하기에는 좋은 공간이 될 것”이라며 “가을철 나들이 장소로 삼으면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60-9300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역명 확정 발표

내년 7월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 24개 역 이름이 확정됐다.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총 27개 역 중 검암·주안·인천시청역 등 기존 지하철 노선과 환승하는 역을 제외한 24개 역 이름을 확정, 발표했다. 2호선 역 이름은 서구 오류동에 있는 검단오류(검단산업단지)역을 시작으로 왕길·검단사거리·마전·완정·독정·검바위·아시아드경기장(공촌사거리)·서구청·가정(무원시티)·가정중앙시장·석남(거북시장)·서부여성회관·인천가좌·가재울·주안국가산단(인천·벨리)·시민공원(문화창작지대)·석바위시장·석천사거리·모래내시장·만수·남동구청·인천대공원·운연(서창)역으로 정해졌다. 철도건설본부는 지역 향토성과 역사성을 나타내고 시민 누구나 찾기 쉽고 알기 쉬운 명칭 위주로 역 이름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이름을 명칭 선정에 최대한 반영했다. 2009년 6월 착공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서구 오류동에서 남동구 운연동까지 29.2km 구간에 건설돼 27개 정거장과 2개 차량기지를 두고 있다.

문의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451-2736

신세계그룹, 송도국제도시에 도심형 복합쇼핑몰 건립



신세계그룹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한 도심형 복합쇼핑몰을 건립한다. 신세계그룹과 우리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3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송도 신세계 도심형 복합쇼핑몰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신세계그룹은 세계적 투자사인 싱가포르투자청이 참여하는 해외자본을 포함해 모두 5천억원을 투자해 5만9천600㎡의 부지에 백화점, 대형마트, 엔터테인먼트, 문화시설 등을 갖춘 복합쇼핑몰 ‘라이프스타일센터’를 2019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신세계는 인천 송도 라이프스타일센터 건립 관련 매입비용으로 토지 1천365억원, 송도 브릿지호텔 900억원 등 2천265억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협약식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이영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했다.

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323

우리시는 지난달 18일 각계 시민원로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자문을 위한 ‘2015년도 제2차 인천시민원로회의’를 개최했다.

시민원로회의는 시장방향과 현안 등에 대해 지역 원로들의 풍부한 경험과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올 3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천의 정체성 확립, 인천 가치 재창조를 위한 인천 인물 발굴, 문학산(성) 정상부 개방 추진 사항,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건립, 인천관광공사 및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항과 국제 부동산 투자박람회, 2015 프레지던트컵 대회 등 주요 시정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원로들의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인 ‘인천의 자치구 명칭 변경 검토’ 안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방위 개념의 군·구 명칭을 역사성과 주민 정서가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하는 의견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문의 시 자치행정과 440-2426

우리시는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을 증진시키고자 아이돌보미를 확대 양성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직접 희망가정을 방문해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교 관리 등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다. 현재 우리시에는 9개 서비스 기관에 93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등록돼 있다. 이중 780여 명이 활동 중이며, 지난해 1만 1천여 가정에 17만건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먼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정부 지원유형을 결정 받은 후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idolbom.mogef.go.kr)나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2514)를 이용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문의 시 여성정책과 440-2871

수인선을 활용한 인천발 KTX가 건설되면 10여 년 뒤인 2026년에 이용자가 연간 359만5천2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천안까지 운행 시간은 45분으로 공항철도를 이용한 현재의 KTX보다 50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임성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15일 인천YMCA 강당에서 열린 ‘인천발 KTX 조기 착공 촉구 시민 대토론회’에서 ‘인천발 KTX 사업의 필요성’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원은 “공항철도를 이용한 KTX는 인천 북부권 시민만 이용하는 데다 운행횟수도 적어 300만 인천시민의 교통 불편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며 “인천발 KTX가 이처럼 많은 여객 운송과 운행시간 단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급히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통 후 편익을 40년간 총 2조1천215억 원으로 추산했고, 이 가운데 68%인 1조4천362억 원을 통행시간 단축에 따른 편익으로 분석했다.

문의 인천발전연구원 260-2600

시정에 지역원로 경험과 연륜 반영



아이 안심하고 맡기세요, 돌봄 서비스 강화

인천발 KTX 2026년 이용자 359만여 명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현장점검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금용)는 월미관광특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자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위원회의 현장점검은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도입 및 운영사업 민간투자사업자인 (주)가람스페이스가 지난달 10일 프로젝트법인(인천모노레일 주식회사)을 설립하고 2016년 8월 상업운영 개시를 목표로 개선사업을 착수하는 데 맞춰 그간의 문제점을 점검하자는 취지였다.

위원회는 부실공사와 하자로 수년간 방치되었던 설비 및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의 성공을 위해 애쓰는 인천교통공사 임직원 및 사업 시행자 측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 활성화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사업 시행자 측은 궤도사업 변경허가 등 사업 착수에 필요한 전반적인 준비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월미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는 역사문화 자연과 예술의 디지털 복·융합 테마파크의 구체적 실행계획 및 준비현황을 설명했다.

시의회는 월미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도로교통망개선, 주차장을 비롯한 편의시설 등의 확충과 환경 정비에 대한 지원방안, 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다양한 홍보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모니터제안서 중 6건 우수제안으로 선정

인천광역시의회는 올해 7월과 8월 중 의정 모니터 제안서 21건을 심사해 6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제안 중에는 “환경미화 차량 뒤에 작업자를 보호하는 금속 여닫이 안전망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장인 서명현 입법정책담당관은 “이 제안은 작업자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산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도 산재비용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 건물에 있으면서도 이웃 간에 왕래가 적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삭막한 도시 생활에 활력을 주고 이웃 간의 소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가구 주택 옥상에 폐각 스티로폼과 통화분을 활용해 입주자가 공동으로 채소를 가꾸자’는 제안도 있었다. 그 외 ‘공공기관이나 학교, 아파트단지, 공원 등에 무궁화 동산을 우선적으로 조성해 애국심을 함양하자’는 의견과 ‘터미널의 버스 도착 시간표를 실제 도착 시간으로 개선하자’는 제안 등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었다.

월미도 폭격 민간인 피해 사건 등 위령사업 지원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인천지역 민간인을 위로하는 위령제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14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정현 시의원(새누리·중구2)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 교육 등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로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인천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거친 사건과 관련한 위령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한국전쟁 월미도 미군 폭격 민간인 피해 사건, 강화(교동)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등 11건이 지원 대상이다.

‘재산매각상황과특수...’ 특위 구성

인천광역시의회는 ‘재산매각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11일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3명의 특위위원을 선임했다. 이 특위위원들은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이날 특위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황인성(동구제1선거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종우 의원을 제1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을 제2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인천시가 송도6·8공구 토지와 인천터미널 부지 등의 재산매각을 불합리한 계약으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고, 인천시가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부 특수목적법인(SPC)들이 예산과 인력의 방만한 운영과 비현실적인 사업추진으로 우리 시가 당면한 재정문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위는 인천시 주요재산 매각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다.

향후 특위는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세부 추진일정과 증인·참고인 선정, 서류제출 요구서를 작성·의결하고, 해당부서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국 섬서성 함양시 대표단 의회 방문



중국 섬서성 함양시 위화시장 등 대표단 6명이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함양시 대표단은 노경수 의장을 예방하고 양도시의 상호 우호교류 방안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노경수 의장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과 실크로드의 사발점이자 중국 중심도시의 관문인 함양시는 관광인프라와 물류거점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점이 유사하다”며, “앞으로 양 도시가 경제협력과 우호교류도시로 함께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화시장은 “인천의 산업공단 교류 및 송도국제도시의 스마트 도시건설 노하우 등 여러 분야에서 인천시와 활발한 교류협력 사업을 희망한다”며 “많은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을 개척하고 동반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예방을 마친 대표단은 도시개발공사와 인천테크노파크를 방문했다.

청소년 의정교실, 의회 의사결정 과정 체험

인천광역시의회는 올해 열세 번째로 지난달 18일 동인천여자중학교 학생회 대의원 35명이 참여하는 제138회 의정아카데미 청소년의정교실을 개최했다.

동인천여자중학교 학생들은 전문 강사에게서 발표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특강을 들은 후에, 실제 조례 제정 방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 모의 상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찬반토론, 표결 등을 통해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영어 수능 절대평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학생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교복 나눔 운동과 교복 공동구매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학생인권,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실 내 CCTV 설치 조례안 등 2건을 열띤 토론 끝에 의결하기도 했다.



청소년 웹진 MOO 제16기 청소년 기자 모집

우리는 청소년 웹진 MOO의 취재 및 촬영을 담당할 청소년 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신청자격 인천에 거주하며 인천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중2~고1 학생
모집기간 10월 5일(월)~30일(금)
신청방법 MOO 홈페이지(moo.incheon.go.kr) 온라인 신청
모집분야 및 인원 취재기자 10명, 촬영기자 2명
일정

- 실기심사 : 11월 7일(토) 오후 3시
- ① 취재기자 : 작문
- ② 촬영기자 : 영상편집 프로그램(프리미어 혹은 베가스) 실기
- 면접심사 : 11월 14일(토) 오후 2시
- 최종 선발발표 : 11월 25일(수)

청소년 기자 활동

- 활동기간 : 2016년 1~12월(1년)
- 청소년 관련 기사 작성(3개/월)
- 한 달에 2번 편집회의 참석 및 청소년 웹진 MOO 홍보
- 청소년 기자 활동 시 혜택**
- 편집회의 및 워크숍 활동 시 자원봉사 실적 부여
- 시 주최, 청소년단체 행사 시 우선 참여 기회 부여
- 활동정도에 따라 시장 표창 수여 및 활동증명서 발급
- 기자활동(기사작성)에 소요되는 소정의 활동비 지원

문의 440-2844

인천아 놀~자, 10월은 인천 문화축제와 함께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우리시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다채롭게 준비하였습니다.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나누길 바랍니다.

축제명	기간	장소	주요내용
부평공물대축제	10월 2~4일	부평대로, 부평구청, 부평아트센터	풍물고유제, 기획공연, 퍼레이드 경연대회, 체한행사
인천-중국야날 문화관광축제	10월 3일 낮 12~21시	자유공원 일원	한중 전통민속놀이, 자장면 빨리 먹기 축하행사 등
개천대축제	10월 3~4일	마니산 상설공연장 일원	개천대제 봉행, 단군인형극 공연, 전국 국악경연대회, 농특산물 판매전 등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10월 3~11일	전등사 일원	가을음악회, 다례제, 전국 학생 글쓰기대회, 남사당놀이, 농특산물 판매전 등
강화도새우젓축제	10월 9~11일	외포항 일원	축하공연, 망동여, 낚시대회, 불꽃놀이, 새우젓가요제, 학생백일장 대회 등
키즈페스티벌	10월 16~18일	송도 달빛공원	체험부스, 키즈테마파크, 베틀시장, 먹거리, 줄길거리 등
소래포구 축제	10월 16~18일	소래포구	특산물 체험 및 지역문화공연
2015인천한류관광콘서트	10월 17일 오후 7~10시	문학월드컵 경기장	최정상급 한류 스타 20여 팀 공연
강화고려인삼축제	10월 17~18일	고인돌광장	인삼 캐기, 인삼주 담그기, 인삼화분 만들기, 인삼사진 전시회, 강화 인삼역사관 등

문의 440-4042

2015 부평 취업박람회

부평구청에서는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취업박람회를 연다. 취직을 원하거나 인재를 모시고 싶은 기업들의 좋은 인연이 기대되는 박람회입니다.

일시 10월 16일(금) 오후2시~4시

장소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 및 식당

구인업체 160여 업체(직접 40개, 간접 120개)

주요행사 내용

- 구인구직 현장면접/상담 및 간접 참여업체 이력서 접수 대행
- 취업상담 및 컨설팅, 각종 직업훈련 정보제공
- 취·창업 관련 체험 및 전시(마을기업 참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동아리)
- 부대행사(스트레스 상담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증명사진 무료촬영, 캐리커처, 개인별 이미지코칭 상담 및 직업심리사의 상담 실시)

문의 509-7621

2015 중국·베트남 기술 교류전

우리시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인천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5 중국-베트남 기술교류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자	세부일정	비고
11월 23(월)	인천→중국 웨이하이 이동 현지기업 1:1 기술교류회	인천공항→웨이하이공항
11월 24일(화)	기술현지화 합동회의 중국 웨이하이→베트남 하노이	한중보세교역센터 엔타이 신공항→하노이공항
11월 25일(수)	기술현지화 합동회의 기술교류 네트워킹 세션	하노이 KOTRA VEFAC
11월 26일(목)	현지기업 1:1 기술교류회	개별방문 기술교류
11월 27일(금)	개별교류 및 현지시장 조사 하노이→인천 (11월 27 오후 8시 35분 도착)	하노이→인천공항

기간 11월 23일(월)~27일(금) 4박5일

지원규모 인천소재 중소(제조)기업 대표 및 임원 10명(1社1인)

내용 중국 및 베트남 현지기업 1:1 기술교류회, 기술현지화 합동회의 및 기술교류네트워킹 등

문의 260-0249, 이메일 : kjoon5@iba.or.kr

2015년 '인천 나눔대축제' 안내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2015 인천 나눔 대축제'를 개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인천 나눔 대축제

- 일시 : 10월 10일(토) 오전 10시 30분~오후 5시
- 장소 : 인천대공원 야외극장
- 주요행사 : 식전공연, 우수 기부자 표창, 개회식, 나눔 퍼포먼스, 행복나눔 걷기대회, 나눔 부스 운영

- 주최 : 인천광역시
- 주관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행복 나눔 걷기대회 참여 안내

- 일시 : 10월 10일(토) 오후 1시~2시 30분
- 장소 : 인천대공원 야외극장
- 신청방법 : 이메일 iccswfms@daum.net, 팩스 885-7016
- 접수기간 : 8월 27일(목)~10월 8일(목)
- 참가비 : 3천원(전액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
- 참가혜택 : 전원 기념 티셔츠 및 기념품 제공
- 문의 : 891-1377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welpia.or.kr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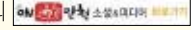
인천을 '生'으로 밀착 취재해서 배달해 드립니다

인천 원조 맛집과 공짜 공연정보, 숨겨진 '보물섬'으로 떠나는 여행정보, 달인의 인생 이야기까지... 인천에 대한 소식이라면 무엇이든 생생하게 속속들이 배달해 드립니다.
 메일로 받아보는 편리한 신문,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매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풍성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침을 찾아가겠습니다.

인터넷 신문 구독하는 법

1. enews.incheon.go.kr → 하단배너 '구독신청'
2. 전화 구독신청 → 시 대변인실 ☎440-8304

인터넷신문 구경하기

1. 인터넷에서 보는 법 → 네이버에서 '인천시 인터넷신문' 검색 후, 이용
2.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보는 법 → 메인화면의  클릭하거나 하단메뉴에서 '인천시 미디어'클릭
3. 스마트폰 앱으로 즐기는 법 → 스마트폰의 'Play 스토어'에서 '인천시 미디어' 검색 후, 앱 다운로드

캠팩仁文아카데미 열어

캠팩스마트시티는 10월 문화의달을 맞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제2기 캠팩仁文아카데미

- 강의일정 : 10월 15일~11월 19일,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총 6회
- 강의장소 : 캠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관
- 강의대상 : 일반인 80명(회당 80명, 대기자 20명 접수)
- 접수기간 : 10월 2일(금)부터 선착순 전화 신청
- 문의 : 850-6016

캠팩스마트시티 특별전시

- 전시명 : '사라진 섬, 파문된 바다, 태어난 땅'
- 전시기간 : 11월 29일(일)까지
- 전시장소 : 캠팩스마트시티 2층 기획전시홀
- 전시품 : 인천 고지도, 근현대 지도, 항공 사진, 관련 사진 엽서 등
- 부대행사
- 전시 관련 특강 6회 실시(캠팩 인문아카데미와 연계 10~11월 예정)
- 도록 제작
- 특별전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

문의 850-6030

추억과 사연이 있는 '시민애장도서전'

인천문화재단은 '2015 인천세계 책의 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애장도서전을 개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있는 책 가운데 추억이 깃든 책을 보내주시면 11월 개최될 전시회에 사연과 함께 책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대상 책의 종류는 상관 없음. 다만 추억과 사연이 있는 책이면 만화, 교과서, 참고서, 오래된 낡은 책도 환영

책 보내는 방법

• A4용지에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도서에 얹힌 사연과 추억을 간략히 기재

• 반송 주소와 함께 책을 봉투에 담아 발송

특전 채택되신 사연과 책에 대해선 소정의 사은품 제공

발송기한 10월 27일(화) 도착분까지

보낼곳 (우편번호 400-022) 중구 신포로 15번길 64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 시민애장도서 담당자 앞

※ 귀중한 책일 경우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문의 455-7166

스마트기기서 손 뭇때는 청소년 상담·치료

인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개인상담 및 병원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상담

- 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진단 조사 시 주의사용자군 및 위험사용자군 청소년 및 본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 진행 : 홈페이지(ynyouth.or.kr)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신청
- 비용 : 청소년 무료

병원치료 지원

- 대상 :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청소년
- 진행 : 전화신청→본 센터 내방하여 검사 진행→대상자 선정
- 문의 : 721-2308

방송통신대 대학원·경영대학원 신입생 모집

2016학년도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경영대학원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경영대학원 특징

- 국립 최초 원격대학원
- 국립대학 교수진의 우수한 강의
- 전 과목 온라인 강의 및 PC와 스마트폰 수강
- 온라인 학습 지도와 오프라인 세미나·워크숍 지원
-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 연령층과 교류
- 착한 등록금(대학원 141만8천원, 경영대학원 198만5천원, 입학금 포함)
- 정부 방침에 의한 정원의 위탁학생 운영

입학전형

• 접수기간 : 10월 13일(화)~26일(월) 오후 6시까지

문의 02-3668-4343

50대를 위한 장년나침반 프로젝트

인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는 50대 이후의 삶을 더 만족스럽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장년나침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생애 경력점검 → 나의 경력자산 찾기 → 경력유지·미래경력을 위한 전략 수립' 순으로 진행

대상 만50세 이상 재직(고용보험가입) 근로자

참여방법 www.lifeplan.or.kr에서 신청

※ 기업출강 : 20인 이상이면 기업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운영

문의 260-3810

가을의 낭만 '2015 그린컬처페스티벌'

GCF에서는 송도에서 즐기는 휴식과 예술의 장인 '2015 그린컬처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낭만의 계절을 예술과 함께 즐기면 더욱 좋습니다.

축제기간 10월 5일(월)~11일(일)

장소 센트럴공원

작품전시

• 어반아트 전시(21명의 작가와 26개 예술작품 전시)

시민·체협 프로그램

• 게릴라 가드닝, 함께 만드는 '원더가든', 전시투어 '아트 한바퀴'

문의 453-7094

제3회 인천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은 제3회 인천 평생학습 박람회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주제 '인천 학(學), 날아오르다!'

참여기관 인천시 8개 기초자치 단체, 지역 교육청, 학교, 도서관, 박물관을 포함한 평생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 학습동아리 등 50여 기관 및 단체

기간 10월 16일(금)~17일(토),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홍보 체험프로그램 캘리그라피(손글씨) 공모 및 체험, 바리스타 체험, 수제 공예 체험, 직업진로 프로그램 등

문의 568-9769, 568-4194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협동조합 주의

우리는 협동조합으로 신고한 후 업체들을 대상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주의를 당부하고 불법 업체에 대해선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협동조합으로 신고한 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의 사기행각을 벌이는 업체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상품을 구매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현혹한 후 돈을 가로채어 잠적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업체는 경찰,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440-4913

2015 인천공항 SKY FESTIVAL 열린다

한국을 대표하는 최대 야외음악축제 '2015 인천공항 SKY FESTIVAL'을 개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명 2015 인천공항 SKY FESTIVAL

일시 및 장소 10월 15일(목)~16일(금), 2일간, 인천공항 잔디광장

행사일정

- 10월 15일(목, 1일차) 공항가족콘서트
- 메인공연 : 공항가족 장기자랑 및 합창 경연대회
- 부대행사 : 한류문화 체험/전시존, 푸드코트, K-POP DANCE CLASS 등 다양한 프로그램
- 10월 16일(금, 2일차) K-POP 페스티벌
- 메인공연 : "한류 K-POP 콘서트"

문의 741-1690~6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하세요

온누리상품권은 인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지하도 상가는 물론 전국 모든 가맹 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구매를 바랍니다.

현금구매 시 5% 할인(월 30만원 한도)

상품권 종류

- 종이 상품권 종류 : 5천원권, 1만원권
- 전자 상품권 종류 : 5만원권, 10만원권, 멤버십카드(충전식)

판매처 종이 상품권은 농협은행(단위농협 제외), 기업은행, 우리은행 전 지점과 인천지역 새마을 금고, 우체국(인천, 남인천, 서인천, 인천계양, 강화, 백령) 및 신한(송림, 부평, 미추홀, 용현, 계산, 남인천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 전자 상품권은 농협은행(단위농협제외), 우리은행, 기업은행 일부 지점, 신한 일부 지점에서 구매

• 인천지역 전통시장, 지하도 상가 및 전국 가맹 시장에서 사용(전자 상품권은 일부 가맹점포에 한함)

문의 873-4900

'숲에서 만나는 가을이야기' 체험활동

인천시 미추홀도서관은 가을을 맞아 인근 야산에서 '숲에서 만나는 가을이야기' 숲 체험행사를 엽니다. 초동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기간 10월 10일(토)~31일 매주 토요일

장소 도서관 뒤편 남동근린공원과 인근 야산에서 숲 체험행사 '숲에서 만나는 가을 이야기'를 운영, 해설가와 함께 숲을 돌며 꽃과 풀, 나무 관찰

대상 초등학교 1~3학년 대상

문의 440-6688

'국제문제와 법, 그리고 인문학' 인문독서아카데미

미추홀도서관에서는 인천시민의 인문학적 교양 향상을 위해 인문독서아카데미 '국제문제와 법, 그리고 인문학'을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10월 1일~29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총 5회

장소 미추홀도서관 세미나실(3층)

강사 서원상(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 대한국제법학회 직무이사)

대상 인문학에 관심 있는 시민

문의 440-6666

BOOK



인천, 세계 활자의 시대를 열다

저자 김진국 전성원
256페이지 / 인천일보사 / 비매품

인천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하게 된 배경에서부터 근현대 인쇄사까지 우리나라 활자와 인쇄의 역사를 방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인천일보 김진국 부국장과 황해문화 전성원 편집장이 함께 엮은 이 책은 ‘세계 책의 문화사’가 에피소드 형식으로 실려 있다. 또 금속활자를 잉태한 강화도의 역사와 2천년 인천의 역사를 정리해 놓았다.



우리 땅 이야기

최재용 지음
392페이지 / 21세기북스 / 1,7000원

역사와 어원으로 찾아가는 ‘우리 땅 이야기’는 지명 유래에 얽히고설킨 이야기와 언어학적 변천사를 다룬 책이다. 이 책은 북한을 포함한 우리나라 여러 땅 이름의 유래를 쉽게 풀어 소개한다. 각 지역에 전해오는 이야기와 역사적 사실도 흥미롭게 와 닿는다. 그 밑바탕과 근거로 삼은 것은 옛 문헌 자료와 역사 서적, 국어학자 또는 관련 분야 학자들의 연구 성과이다. 이를 통해 이 책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잘못된 지명 유래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 최재용은 1961년 인천에서 태어나 동인천고와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부터 2년 동안 경기도 부천에 있는 소명여고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했고 1990년 2월 조선일보사에 들어와 현재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2003년 인천 지역의 땅 이름 유래를 다룬 책 ‘월미도가 달꼬리라구?’를 낸 바 있다.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아! 옛날이여’



40여 년 전 가을, 주안

네다섯 살쯤되었을 때 같네요. 엄마가 사주신 새 옷에 하얀 스타킹까지 신고 기념사진을 찍었답니다. 40여 년 전에 제가 살던 주안은 지금의 복잡한 도심이 아닌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하늘거리는 코스모스가 그때가 가을이었다고 말해주네요.
홍명숙 인천 남동구

흑백사진 속 ‘독정이’는 어디로

남구 용현동 128번지 일대, 일명 독정이. 사진 속 배경으로 지금은 사라진 우리나라의 수출역군 ‘평화기업사’와 현재 없어진 ‘운명감정소’ 정방이 보입니다. 운명은 보석을 감정하는 것처럼 정확히 감정하지 못하는가 봅니다.
조영호 남구 경인북길



장원

우리 가족의 행복한 봄나들이

지금부터 26년 전, 어린아날에 자식들을 데리고 송도유원지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당시 43세이던 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족들의 든든한 아버지였습니다. 긴 시간을 함께 해 온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박계양 남동구 구월로



문학산에서 즐거운 봄 소풍

지금부터 26년 전, 초등학교 5학년 때의 봄, 벚꽃이 만발한 화창한 날씨에 봄 소풍을 가서 우리 반 친구들과 추억을 남겼습니다. 앞줄 맨 오른쪽이 저입니다.
박승희 남동구 구월로

“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

옛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그때 그 시절 ‘옛 인천’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접수됩니다.

보내실 곳 |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손끝으로 세상을 열다

글 심현빈 화도진도서관 시각장애인자료실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서구 문물을 가장 빨리 접한 도시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한 인천에서 태어난 송암 박두성 선생님께서 창안해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관계자 외에는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으니, 아직 우리 사회가 점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도서관 시각장애인 자료실에서 일을 하면서 인천이 점자 탄생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임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천 향토 자료의 부재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책의 수도 인천’과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인천향토사의 고전 ‘인천석금(仁川昔今)’을 점자도서와 CD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더러 이런 말을 합니다. ‘점자도서를 시각장애인 몇 명이나 보겠느냐고...’ 그러나 보고 안 보는 문제로 접근한다면 가치나 의미는 퇴색하고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 당위성은 이용자가 몇 명인가로 따질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향토자료가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로 따질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보 접근성에 대한 그분들의 권리에 대한 책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들을 만나면 점자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절실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인천에는 제도권 내에서 이들을 위한 점자교육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글을 모르고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 한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점자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교육 차원의 일인 것입니다.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려면 제

도권 내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간혹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교육을 실행하면서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육에 전문성과 특수성이 제외된 경우는 없습니다. 점자는 특수문자이며 그 교육에도 특수성과 전문성과 지속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글을 배우고 익히는 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점자교육은 더욱더 지속성을 갖고 해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점자교육은 이동성의 문제로, 찾아가는 점자교육을 표방해야 할 것입니다.

문자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첨단기기의 발달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쉬워졌다고 하지만, 길이 남길 문화유산으로 점자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점자의 탄생지 인천에서 점자교육을 통한 점자부흥운동이 불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송암 박두성 선생님의 염원처럼 점자로 세상을 열게 될 것입니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 桐千年老恒藏曲(동천년노항장곡)
오동나무는 천년이 되어도 항상 곡조를 간직하고
梅一生寒不賣香(매일생한불매향)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을 팔지 않는다.

— 신희(申欽:1566~1628 조선 중기의 문신)

몽(夢)땅 인천골목



“가갸거겨”

가만히 보니,

기와집은 한글을 닮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귤...

아, 시옷도 보입니다.

가갸거겨, 웅기중기, 뽀뽀뽀...

그들은 서로 껴안고 기대며 살아갑니다.

— 동구 송림동에서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